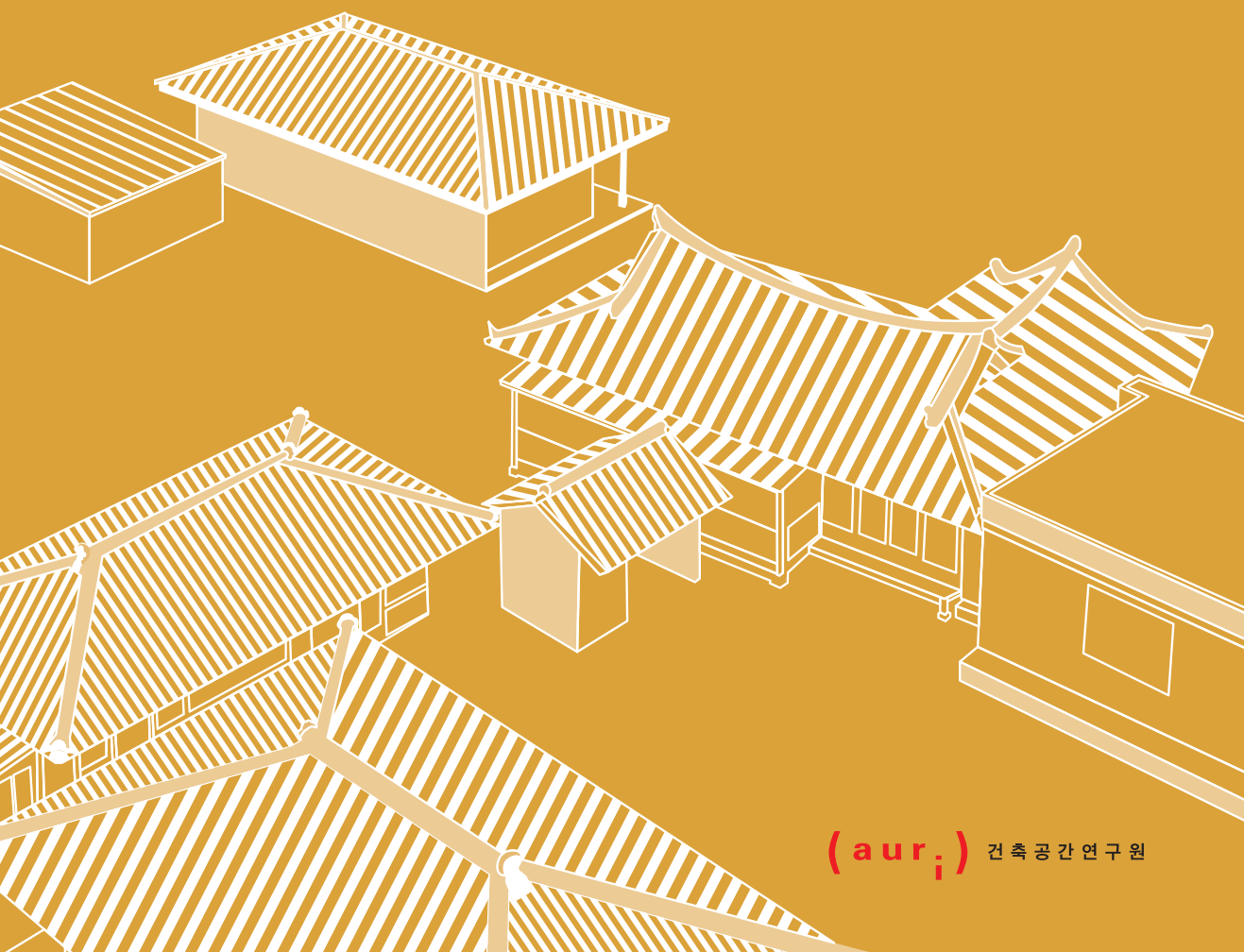


광양읍
한옥,

지역
문화거점을
향하여



광양읍
한옥,

지역
문화거점을
향하여

I. 광양읍 되살리기의 시작 /08

염은진 광양시청 건설과 팀장(前 도시재생과)

II. 광양읍의 대표 자산, 한옥 /26

신치후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장

III. 광양읍 한옥거점공간 계획과 구축의 과정 /58

김원천 참우리건축 한옥연구소 소장

IV. 지역 문화거점으로 거듭나는 한옥 /106

박소연 (주)아트앤라이프 대표

V. 광양읍 한옥거점공간에 거는 기대 /132

진태승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기획의도

한옥과 한옥마을 보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 계기는 서울 북촌 가꾸기 사업(2001~2010)으로 2002년 서울과 전주가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 제정하였고, 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법적 근거를 갖추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한 한옥건축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존에 남아있는 한옥을 보전하고 한옥건축을 활성화하는 성과를 내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옥건축 보조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옥 자산을 가진 지방 중소도시는 '한옥' 자체를 진흥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서 한옥을 지역의 주요한 자원으로 보전·활용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함께 한옥의 진흥을 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광양시 광양읍의 한옥거점공간은 그러한 전략을 실행에 옮긴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과거 광양읍성이 있던 이곳은 조선시대 후기부터 1980년대까지 지어진 한옥이 600여 채나 남아있어 한옥을 지키고 가꾸어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나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쇠퇴하고 있었다. 한옥은 노후화되고 방치되어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되기는커녕 오히려 정주환경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었다.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쇠퇴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한옥을 다시금 지역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의 비전을 ‘골목과 한옥, 문화로 다시 가꾸는 광양샬터’로 삼았고, 노후화된 한옥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한옥거점공간을 조성하였다.

한옥거점공간은 쇠퇴하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획되었고, 이를 위해 지역 내 남아있는 한옥에 대한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졌다. 광양시는 공공의 영역으로 활용할만한 한옥을 찾아내어 매입하였고, 그 한옥들은 한옥건축 전문가의 손을 거쳐 그 역사와 가치가 드러내면서도 다시금 사용할 수 있도록 재탄생되었다. 한옥거점공간은 유연성이 부족한 공공기관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이 아닌 문화산업 영역에서 활동하는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운영되면서 지역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광양읍 한옥거점공간은 아직 성공한 사례라고 부르는 선부르다. 하지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옥 자산을 활용하고 거점을 조성하여 한옥마을 전체로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도는 분명 의미가 있고, 그 효과는 점점 커지고 있어 앞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이와 같이 한옥거점공간의 기획-조사-건축-운영에 이르는 과정을 담당했던 주역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그 과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지켜봄으로써 한옥 자산을 가진 다른 지역들에서 더 좋은 사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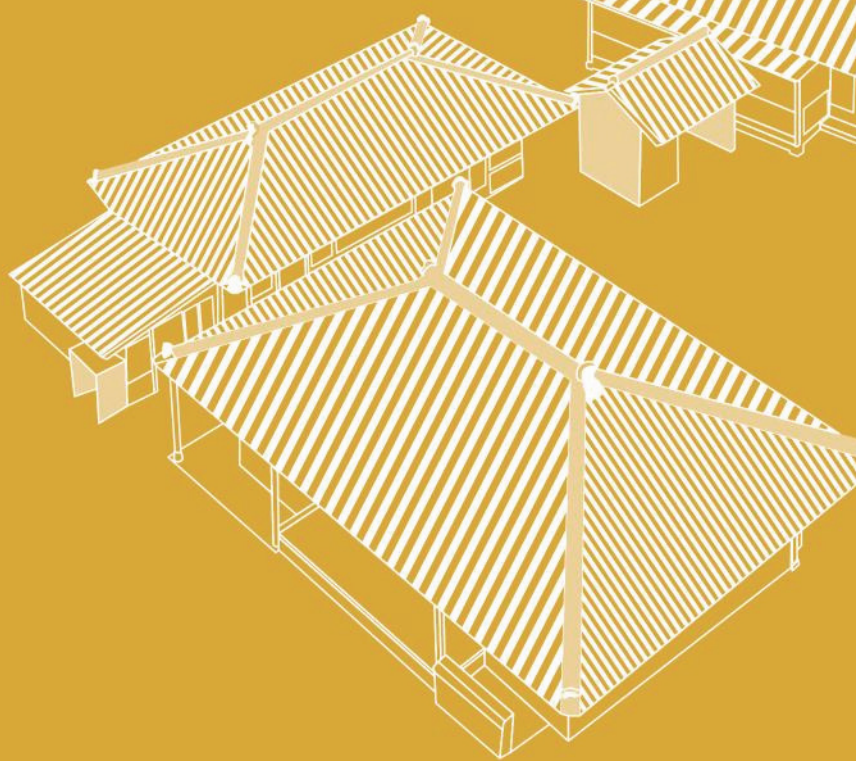


광양읍
한옥,

지역
문화거점을
향하여

I

광양읍 되살리기의 시작



염은진 광양시청 건설과 팀장(前 도시재생과)

광양읍 되살리기의 시작

광양읍 원도심 쇠퇴와 재생의 필요성

광양시는 고려시대부터 광양(光陽)으로 불렸는데 이는 “따스하게 빛나는 햇살”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광양읍은 조선시대(1415년)에 축조된 ‘광양읍성’과 옛 광양군청(현 광양역사문화관, 국가등록문화재)이 있던 곳으로 광양시의 오랜 행정 중심지이자 역사적으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광양읍 겨울 전경

©광양시청

하지만 포스코 광양제철소 건설(1981년)과 함께 산업의 중심지가 동광양 지역으로 단숨에 옮겨갔고, 1995년 광양군과 동광양시를 통합한 광양시가 출범하면서 동광양이 명실상부한 산업과 행정 중심지가 되었다. 반면 광양읍 원도심은 급속한 성장을 이룬 동광양에 비하여 빠르게 쇠퇴하면서 광양시의 발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필자는 광양읍 안에 사는 주민이 아니었고 광양읍 도시재생 업무를 맡기 전까지 광양읍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적도 없었기에 광양읍 지역에 대해 잘 안다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재생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곳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었다.

광양읍사무소, 광양경찰서, 버스터미널, 광양역 등 주요 공공시설이 광양읍 원도심 외곽으로 이전하였고, 인근 지역에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어 원도심의 인구이탈이 가속화되었다. 광양읍 인구가 1990년-2010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으니 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광양읍 원도심은 노후주택, 공·폐가, 빈 점포가 계속해서 늘어나 정주환경은 계속해서 악화되어 갔다.

법정리	인구수		증감률
	1990년	2010년	
계	20,620	10,309	-50%
칠성리	4,327	3,034	-29.9%
읍내리	3,196	1,079	-66.2%
목성리	8,891	4,109	-53.8%
인동리	1,369	705	-48.5%
인서리	2,837	1,382	-51.3%

광양읍 인구수 변화

자료: 광양시, 2014년 통계연보(단위: 명)

광양읍 도시재생사업과 한옥의 재발견

필자가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을 처음 담당하게 된 건 2017년 7월이었다. 이때는 이미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광양읍은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선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지역 재생을 위한 광양시의 각종 계획과 광양읍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계기로 하여 본격적인 재생을 추진하게 된 것이었다. 그간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관계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광양읍 지역재생에 그간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것이 지금의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은 2016년부터 6여 년간 진행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과 기타 협업사업을 통한 추가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어느 한 지역의 재생방안을 구상하는 데 있어 상권 침체와 공공기능의 약화, 인구 감소 등 여러 쇠퇴요인이 있을 것이고, 지역의 재생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끼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민도, 전문가도, 공무원도 각자 나름의 보는 관점이 다르겠기에 지금의 한옥을 중심으로 한 광양읍 도시재생의 큰 틀이 완성되기까지는 계획에 있어서 여러 고민과 시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쇠퇴한 상가거리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컸다고 한다. 상가활성화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를 끌어들이 거리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거리를 정비하고 각종 기반시설과 경관을 개선하는 방식의 사업을 광양시에서도 진행하였으나, 단순히 보이는 부분의 정비만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바로 늘어난다든가 하는 즉각적인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안재락 총괄코디네이터(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그동안 밖에서부터 바라보던 재생의 시선을 안으로부터의 재생 즉, 골목 안 일상에서부터 시작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양읍성의 흔적인 옛길과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광양읍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옥은 그저 정주환경을 해치는 노후주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을 대표하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사업구역 내 전체 주택의 약 25%를 차지하는 광양읍 한옥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로 이어지는 광양의 주거 변천사와 생활사를 그대로 보여주어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요소로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자산이었다.



광양읍 인서리 폐가

자료: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실행계획 보고서(2018)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당시 대상 구역 내에는 600여 채의 한옥집이 분포해 있었고, 문간방과 담장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 한옥이 밀집한 지역이 꽤나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신작로가 개설되면서 골목길이 끊기

고 골목과 접하였던 한옥들은 집집마다 담장이 높이 올라가 있거나, 제각각 문간방이 들어서 있어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던 것이었고, 한옥이 이렇게 많다고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광양읍 신규도로 개설 후 방치된 자투리공간

자료: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실행계획 보고서(2018)



광양읍 한옥 골목길

자료: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실행계획 보고서(2018)

그렇게 숨어있는 한옥의 모습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한 가옥별 조사도 병행되었고 건축시기별, 생활형태별, 규모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충분히 살릴 가치가 있는 한옥의 분포 현황도 함께 정리가 되었다. 지금의 한옥거점공간은 그러한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 안에 부지 확보가 가능한지와 함께 골목길, 폐창고 등 주변과의 관계, 동선을 고려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완성될 수 있었다.

총괄코디네이터 안재락 교수님의 도움으로 전국의 학생들과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서 골목길에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실제 실행해보는 ‘초일상’ 공모전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아이디어 공모에 출품한 작품들은 광양읍 골목 안에서 직접 설치하고, 실행되었다. 또한 공모전이 진행되는 2박3일 동안 학생들은 동네에서 먹고 자면서 각자의 활동을 진행하고 동네 주민분들과 소소한 파티와 연주회를 열기도 하였다.

필자가 이러한 재생사업을 담당하면서 이와 관련된 외부인들이 방문하면 광양읍을 소개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 때마다 예쁜 골목길과 마당이 너른 남향의 한옥들을 너무나 매력 있는 공간으로 바라봐 주는 분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 지역이 한옥과 골목길이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으로 바뀌어나가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바랐던 기억이 난다.

광양읍 한옥거점공간의 기획 의도

광양읍 한옥거점공간(현 ‘인서리공원’)은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조성된 공간이다. 원래는 평범한 주택과 폐창고였던 곳이었고, 서로가 개별적인 공간들이었다.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고, 어떤 곳은 막혀있던 담장이었는데 개방되거나, 제한된 동선으로만 이용되던 부분들이 새로운 하나의 골목길 형태로 연결된다든가 하는 일련의 변화 과정을 거쳐 지금의 새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에 사는 분들조차 광양에 한옥이 많다는 것을 생소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상공에서 보지 않으면 한옥면면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구조였기에 한옥거점공간을 중심으로 한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도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공사가 완성되어 가면서는 시설이 오픈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로부터 감탄과 기대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옥거점공간은 총괄코디네이터 큰 방향을 잡고, 거기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적절하게 투입되면서 하나의 퍼즐이 완성되어가듯 지금의 모습으로 탈바꿈될 수 있었다.

이 곳 거점공간은 도면 한 장에 표현하기에는 구상하는 역할이 매우 많은 곳이었다. 인서리 골목을 방문하거나 숙박을 하는 분들이 아침이나 저녁이면 차를 한잔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인서리 골목을 일종의 마을호텔이라고 본다면 이곳은 호텔의 로비와 프론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거란 구상이었다. 운영 형태에 따라서는 오랜 세월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에게는 동네사랑방이 되어 주고, 골목길을 탐방하거나 거처를 알아보는 분들에게는 골목안내센터의 역할이 되어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었다.

또한 담당자로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점공간의 역할은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구상이었다.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 주거공간이든, 상업공간이든, 기타 문화공간이든 한옥을 수리하여 활용하는 여러 케이스의 리모델링 사례를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이었고, 이 곳 인서리 골목, 나아가 광양읍 전체 골목에서 한옥을 고쳐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직접 시도해 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광양읍 한옥거점공간의 건축과 운영 계획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은 2015년 9월 공모 선정 이후에 사업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만 3여 년간 진행되어 실질적인 사업 착수가 늦어졌던 편이었다. 그런데다 광양읍 도시재생의 한옥거점공간은 행정청으로써도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계획과 실행방식들을 많이 시도하였기에 보통의 시설사업에 비해서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2018년 11월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이 완료되자 한옥가꾸기 사업 건축설계용역 제안 공모를 실시했다.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일반적인 공공사업의 계획과는 달랐다. 대부분의 공간이 유동적인 복합공간으로 경우에 따라 달리 사용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오픈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수립되어 있는 곳이었기에, 공간의 쓰임을 계획서에 A는 B다 하는 방식으로 담는 것은 맞지 않았다. 광양시가 매입하여 시범적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했던 한옥은 5채로 활성화계획 상에서는 한옥수리지원센터, 인포메이션 센터, 순환주택(한옥 거주자가 집수리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한옥 게스트하우스, 작은도서관 및 커뮤니티 센터, 마을카페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는 해당 한옥의 운영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각 공간의 용도도 특정하지 않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간 계획을 하여야 했기에 건축가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첫 작업인 설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 감사하게도 초기에 계획 수립 때부터 광양읍 도시재생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었던 김원천 소장을 만나 진행하게 되었다.

대부분 기존 한옥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하려 했으나 설계 과정에서 일부 철거해본 결과, 불가피 철거 후 신축해야 하거나, 신축이 낫다고 판단되어 신축을 결정했던 건물들도 있었다. 건축가는 각 동마다 문틀, 창문, 천장, 통로 등에 대해서 요소요소별로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살릴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결정하여 주었고, 담장, 대문, 마루, 창문 등 동선과 공간의 활용에 영향을 줄만한 수많은 요소들을 깊은 고민을 통해 도출해 주었다. 또한, 막상 공사가 들어가면서 부재가 하나 둘 철거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멋스러울 만하거나 필요에 의해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판단해 주기도 했다.



착공 전 다경당의 모습

© 염은진

현재 인서리 공원 한옥 카페로 들어가는 입구의 느낌부터 한옥 채의 사이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 등 작은 것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동선을 세심하게 배려한 설계였다. 설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시 공무원, 총괄계획가, 건축가가 함께 만나서 의견을 맞춰나갔고 시 담당자로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서 진행하고자 하였다.

한옥과 골목길이 모두 노후화 되었으므로 이러한 과거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면서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시설공사라는 것이 매우 힘든 작업이고, 모든 공정에 있어 일부를 허물어 내거나 손을 볼 때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았다. 특히 공공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는 것은 현행법에 맞게 수십 년 전의 시설을 살리면서 공사를 해내는 것이기에 한옥의 리모델링, 창고의 리모델링은 건물의 부재 일부를 철거하는 등의 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예상치 못했던 공정이 추가되어야 한다거나, 현장에서 무언가를 판단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았으며, 좁고 오래된 골목길은 작업여건이 여의치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지하매설물 상태, 도시가스매설 지연 등의 돌발 상황에 대처해야하는 상황이 많았었기에 담당했던 직원들 모두가 너무나 고생이 많았고, 세심한 작업이 많은 사업이었던 만큼 공사기간도 꽤나 오래 걸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옥거점공간에 바로 접한 수명이 다한 미곡창고(현재 반창고)는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비를 확보하여 한옥거점공간과 공간적으로 연계·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옥거점공간의 운영방안은 공간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러 측면으로 이루어졌고 조심스러운 부분이었기에 더디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시설의 운영방식도 일반적인 공공시설의 형태와는 달랐고 조례 개정, 내부적인 의사 도출과정과 공감대 형성에 있어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했다.

초기 운영에 대한 구상은 전문성을 갖춘 집단이 비교적 공격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보자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었던 것 같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공성에만 치우칠 경우 재미없는 공간이 될 것이 우려되었고,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비용을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어야 했으며, 재미있는 공간이라면 더욱이 민간에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상업적 공간이 함께 공존해야 했다. 또한, 그러면서도 지역 내 한옥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샘플이 되어주고, 오픈된 공유공간으로써의 정체성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고민도 있었다.

다른 지역의 유사 운영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와 답사를 하기도 했고, 자문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면서 광양읍 한옥거점공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입소문을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결국에는 좋은 공간에 부합하는 좋은 운영자를 만나야지만 최종적으로 이 시설과 지금까지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쟁력 있는 운영자를 찾기 위해 선택한 것은 민간위탁 방식이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리모델링한 한옥뿐만 아니라 문화창고(반창고)와 광양읍 곳곳에 있는 민간 소유 임차주택 3채도 함께 관리위탁하여 민간의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광양읍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했다.

운영자 공개 모집 결과 현재의 운영자가 선정되었고, 당초의 바램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에 매우 깊이 감사하고 있다.

한옥거점공간에 대한 바람과 소감

광양읍 한옥거점공간이 진정한 빛을 발하려면 주변 한옥과 골목길을 중심으로 활력 있는 공간들이 확산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사업이 어느 정도 사업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국비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광양읍 한옥거점공간을 중심으로 한 인서리 골목에 여러 연계와 지원이 계속 연결될 수 있으면 한다. 마중물사업으로 추진된 한옥거점공간이 표본이 되어 광양읍 한옥 수리와 활용을 촉진시켜 한옥 자산이 빛을 발하고, 하나하나의 장소를 싹틔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골목길을 타고 혈액을 공급하듯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초의 목표였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재생사업은 물리적인 사업은 끝났지만 아직도 그 성과를 이루내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

한옥거점공간이 만남의 장소, 활동 장소, 행사 장소, 살아보기 장소, 숙박 체험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복합공간으로써 이리이러하게 활용될 수 있겠다고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인서리공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시설조성의 계획과 실행을 담당했던 직원으로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동을 느끼고 있다.

광양읍 한옥거점공간은 살아 숨 쉬는 생명체와 같은 느낌으로 늘 바라봐 왔던 곳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공간은 시시때때로 변화되는 이벤트에 따라서 이용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필요에 따라서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공간이고 앞으로도 기능과 역할이 무궁무진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담당자로서는 쉽지 않은 사업이었고, 재미도 있었고, 고생도 많았기에 더욱 애정이 있었던 사업이고, 여러 분야의 좋은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면서

배운 점도 많았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 이러한 사업은 행정, 도시재생센터, 용역사 등의 전문가 그룹, 외부자문, 총괄계획가 등 여러 파트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이었고, 각자 나름의 의견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방향도 맞추어야 하고 속도도 맞추어야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공공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공감대가 부족하거나, 예산집행의 방법이 모호하거나, 규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떤 과업이든 물량만 생각한다면 그냥 진행하면 되겠으나 질적으로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도출된 좋은 안이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담당자로서의 임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추진하는 사업이 좋은 전문가 분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사업과 관계 맺은 전문가 분들이 가진 역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장(여건)을 열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했던 사업이었다. 광양읍 도시재생은 계획의 방향을 독심 있게 지휘해 준 총괄계획가가 있었기에 오랜 기간 동안 큰 흔들림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고 계획 수립과 역량강화를 수행했던 용역사, 설계자, 감리자,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 공무원들 모두의 역량과 애정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인서리 공원이라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여러 부분들이 다소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보완하고 한단계 한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 공간에서부터 광양읍 골목을 따라 한옥이 확산되어 가기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가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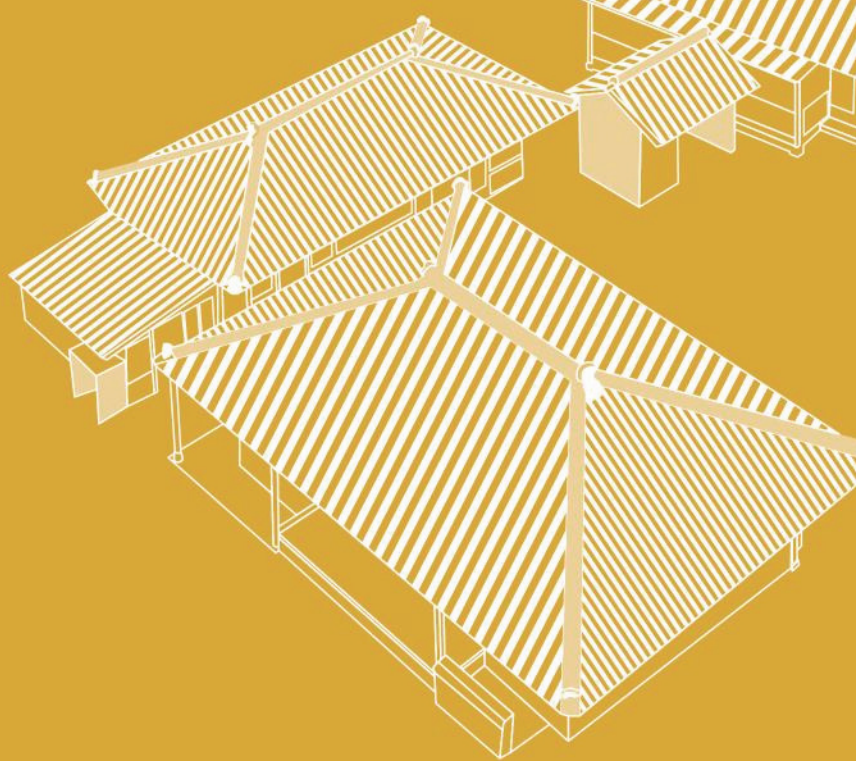


광양읍
한옥,

지역
문화거점을
향하여

II

광양읍의 대표 자산, 한옥



신치후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장

광양읍 한옥의 현황과 특성

광양(光陽)읍의 역사

광양읍은 전라남도 광양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읍으로, 광양시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백제시대에는 마로현(馬老縣)이 되었으며, 통일신라 시대에는 회양(懷陽), 고려시대부터는 광양(光陽)으로 불려왔다. 고려시대에는 광양현이 되어 승평군의 속현으로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감무가 파견됨으로써 주현으로 독립하였다. 광양읍은 조선시대부터 중요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김 양식의 중심지로 유명했다. 1415년 읍성이 축조되면서 광양읍은 조선시대 광양지역 읍치로 1980년대 중반까지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1989년 동광양시가 승격되어 광양군에서 분리되었다가 1995년에는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되어 광양시가 되었다. 이로 인해 광양시는 산업과 행정의 중심이 동광양으로 이전하였으며,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건설과 함께 동광양은 빠르게 도시화되어 광양시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광양읍은 1980년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원도심이 혼잡해지고, 읍사무소, 광양경찰서, 터미널, 광양역, 여성문화회관, 등기소 등 주요 공공기관이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더불어 덕례, 용강, 칠성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원도심 외곽에 개발되면서 원도심에서 인구 이탈이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광양읍 원도심의 인구는 1990년에 비해 50% 감소하였으며, 2008년 이후로는 매년 약 3% 이상씩 감소하고 있다. 또한,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전체 주택의 70%를 넘고 있다.

광양읍 한옥의 현황과 특성

광양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의 주거 변천사와 생활사를 간직한 풍부한 한옥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광양읍 지역에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한옥은 조선시대부터 근대기까지의 전통한옥과 근대 이후, 특히 1970~80년대에 지어진 개량한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후 인구의 증감과 생활방식의 변화 등으로 공간의 변형과 증축이 일어나고 공·폐가화가 진행되는 등 광양읍 지역의 주거 변천사가 잘 나타나 있다.

광양읍성을 중심으로 한 광양읍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한옥 수는 414동(2020년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 조사결과, 잠정적으로 한옥으로 판단되는 것을 포함하면 469동)으로 광양읍의 옛 골목길을 중심으로 원도심 내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광양의 지역정체성 강화요인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1960년대 이전에 지어진 전통한옥부터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 지어진 개량한옥, 심지어 1980년대 초 광양제철소 건설시기에 신축한 한옥까지 잘 남아있어서 지역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전통한옥과 개량한옥 등 곳곳에 풍부한 한옥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로 증축이 이루어져 기존 목구조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상당수의 한옥이 지어진지 40년 이상으로 노후화 정도가 심하고 한옥의 수선, 개축 등 관리의 어려움으로 현재 거주 주민들이 기본적인 정주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광양읍 원도심의 인구 감소와 함께 방치로 한옥의 증가로 폐가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정주환경이 나빠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 이탈현상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광양의 전통한옥 방과 방 사이에 마루가 있고, 방-마루-부엌이 일렬로 배치된 一자형이며 전면이 퇴칸으로 구성되는 남부 지방형 한옥의 형태를 기

본으로 하는데 남부한옥을 남동 해안형 및 영남형으로 세부 분류하기도 하지만, 광양읍 지역에는 두 형태의 한옥이 모두 존재하므로 상위 분류인 남부한옥으로 칭한다.

광양의 개량한옥 1970~80년대에 주로 지어진 한옥으로 기둥, 도리, 보 등 한옥의 주요 구조부재를 규격화된 목재(수입목재로 추정)를 가공해 조립했고 초가, 기와 등 전통 재료의 지붕대신 합석, 슬레이트, 시멘트 기와 등으로 개량해 부재의 규격화와 현대 건축 재료의 보급으로 지어진 한옥을 지칭한다.

지역 장인(염규선 회장님 외 4인) 인터뷰中 (2016.11.16.)

“70년대 이전에는 손으로 작업했고, 막 기계가 들어오던 시기였다. 새 마을사업 이후 취약부재 개선사업이라고 지붕 개량을 많이 했고, 한옥 바람이 불었다. 목조가 비싸서 전면만 목조로 하기도 했다. 사람 손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부재를 적게 썼고, 기둥 등은 말레이시아, 미국, 소련 등 외송, 도리 위에는 우리 송을 썼다. 몇 사람이 치목하다보니 비슷한 치수를 썼을 것이다. 집은 주로 一자형, 3~4칸짜리, 잘 사는 집은 ㄱ자로 지었다. 개량이나 수리 하면서 다들 천정을 쳤다. 어느 시점에, 아마 8~90년대 쯤, 제철이 들어오고 많이 수리를 했다. 87년 제철소 첫 물 뜰 때, 사람이 한참 많이 들어왔고 그 시절 역전에 공장에서 시멘트 기와를 생산해 썼다. 적심 들어가고 전통 방식대로 하고 한식 기와든 시멘트 기와든 썼고, 슬레이트를 쓰다가 한 10년 전부터인가 강판기와를 씌웠다.”

광양한옥의 증축 : 1980년대 이후 전통 및 개량한옥에 공간을 증축한 증축한옥이 나타나는데 이는 원도심의 인구 증감과 생활방식의 변화 등으로 공간의 변형과 증개축이 일어난 것이고, 광양제철소 건설이 완료되며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공·폐가화가 진행되는 등 증축한옥을 통해 광양읍 지역의 도시와 주거 변천사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증축한옥은 공간의 활용 및 냉난방 효율을 위하여 본채의 처마 끝 혹은 지붕을 연장하여 공간을 확장한 유형과 문간채, 창고 등 부속채를 증축한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문간채를 증축한 형태는 1985년 광양제철소의 설립 이후 유입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다수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1990년대 이후 광양제철소 인근인 동광양의 주거지 개발 등으로 광양읍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현재는 비워져 보존상태가 불량하거나 폐가화 된 경우가 많다.



폐가 또는 방치된 한옥, 빈번한 증축 형태

© 참우리건축

광양읍 한옥 기초조사

1) 조사개요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는 2019년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기반구축’ 사업에서 광양읍 일대 한옥의 육성 및 지원제도 수립 등을 위해 우선 기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광양시에서 제공된 광양읍 일대 조사대상 한옥 목록을 토대로 현장 확인을 통해 한옥 여부를 판단하여 조사 대상 한옥의 소재지와 조사 대상 건수를 재확인 및 정리하고, 향후 보전·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옥 자산 목록을 구축하였다.

현장조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한옥 자산의 단계별 보전·활용계획 수립의 근거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조사 완료 한옥을 대상으로 건축자산 기초조사 실시와 광양읍 일대 한옥 등 건축자산의 물리적 현황 및 보전·활용 여건 분석을 위한 심층조사를 진행하였다. 심층조사에서는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전·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한옥 등 건축자산 5~10건을 선별하여 실측조사 및 소유자·거주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지 범위는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읍내리, 목성리, 인동리, 인서리 등 5개리 10개 마을에 해당하는 광양읍성의 내부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약 840,000㎡이다. 조사 대상지 내 건축물은 3,936동이며,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추정 한옥은 총 553동으로 조사되어 예상보다 한옥이 대단히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기본조사의 틀로 삼았다. 향후 광양시에서 한옥을 관리, 활용할 때 필요한 한옥의 평면 형태, 한옥의 외관을 구성하는 창호 마감재 및 담장 재료 등에 대한 세부 조사항목을 추가하였다. 건축자산 기초조사표에 따른 조사 항목 중 ‘보존상태(상/중/하)’는 소정의 기준을 참고하였다. 건축자산 기초조사표에는 건물의 원형, 전경, 구조 및 재료 상세 등을 포함



광양읍 한옥 기초조사 범위와 추정 한옥

자료: 광양시(2017년 기준)

하여, 조사 대상 건물의 특징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심층조사는 현장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축 시기별 A등급 한옥 중 향후 보전·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표 한옥과 보전·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자산 5~10건을 선별하여 평면 실측조사 및 소유자-거

주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표 한옥은 지역 한옥정책 수립에 관한 이슈 발굴이 가능하고 지역의 한옥특성을 내포하는 한옥을 의미하며, 대표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준을 수립하여 선정하였다. 실측조사는 한옥의 물리적 치수를 실측하며, 육안으로 확인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실측도면(CAD) 파일을 작성하였다. 원형에서 변형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원형을 찾아 원형을 표기하였다.

면담조사는 한옥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 내력, 한옥 공간별 쓰임새, 불편사항, 향후 지속적 거주 또는 매매·임대 의향, 향후 활용 수요 등에 대한 청취 내용을 기록하여 심층조사 결과에 포함시켰다. 특히 한옥의 공간별 쓰임새 및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실측도면(CAD)에도 표기하여 향후 광양시에서 한옥을 보전, 활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조사와 심층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양호한 한옥 등 건축자산이 밀집한 구역을 중심으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후보지를 도출하여 향후 전라남도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구 분	결과물	형식	비고
기본조사	건축자산 기초조사표 (건물별 A4 2쪽 분량)	한글파일	「한옥등건축자산법」 기초조사표에 한옥 특성 반영
	광양한옥 기본조사 대장	엑셀	전체 건물의 현장조사표 내용 취합
	건물사진(건물별 폴더 분류)	이미지	별도 촬영기준을 따름
심층조사	조사항목별 기초통계표 및 그래프 등 시각자료	엑셀	기본조사 대장을 기반으로 작성
	실측도면(건물별 대치 및 평면도)	캐드	A등급 한옥 등 주요 건축자산 5~10건 조사
기타	면담조사 기록물	한글파일	공간별 쓰임새 및 불편사항은 캐드도면에도 표기
	건축자산 진흥구역 후보지 제안 및 조사 의견서	한글파일	위치, 선정 사유, 향후 주안점 등

광양읍 한옥기초조사 결과물 목록

2) 기본조사

조사구역 설정

시에서 제공된 광양읍 일대 조사대상 한옥 목록을 토대로 추출된 총 553개의 조사대상 한옥은 도로에 의해 A~F 블록, 총 6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구역의 구분 체계를 현장조사에서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조사구역을 도로와 5개 리(里)의 행정구역에 따라 각 블록을 4~8개 정도로 다시 세분하고, 각 소구역은 ‘A-가, A-나, A-다, A-라...’와 같은 방식으로 명명하였다.



조사구역의 세분화

자료: 건축공간연구원. (2021).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기반건축 용역. 광양시

사전조사

시에서 제공된 광양읍 일대 조사대상 한옥 목록을 토대로 추출된 총 553개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의 조사대상 한옥 목록 중 일부가 오류로 확인되어 광양읍내 조사대상지 내의 전체 건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재시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 자료에서 추출된 조사대상 중 잠정한옥으로 판정된 한옥은 466개로 70.6%이고, 비한옥으로 판정된 한옥은 97개로 14.7%, 철거 또는 파손된 한옥은 38개로 5.8%를 차지하였다. 기존 자료에서 누락되어 추가로 조사대상에 포함된 잠정한옥은 59개로 8.9%였으며, 기존 자료에서 추출된 조사대상 466개와 추가로 조사대상에 포함된 59개, 총 525개를 대상으로 현장 기본조사를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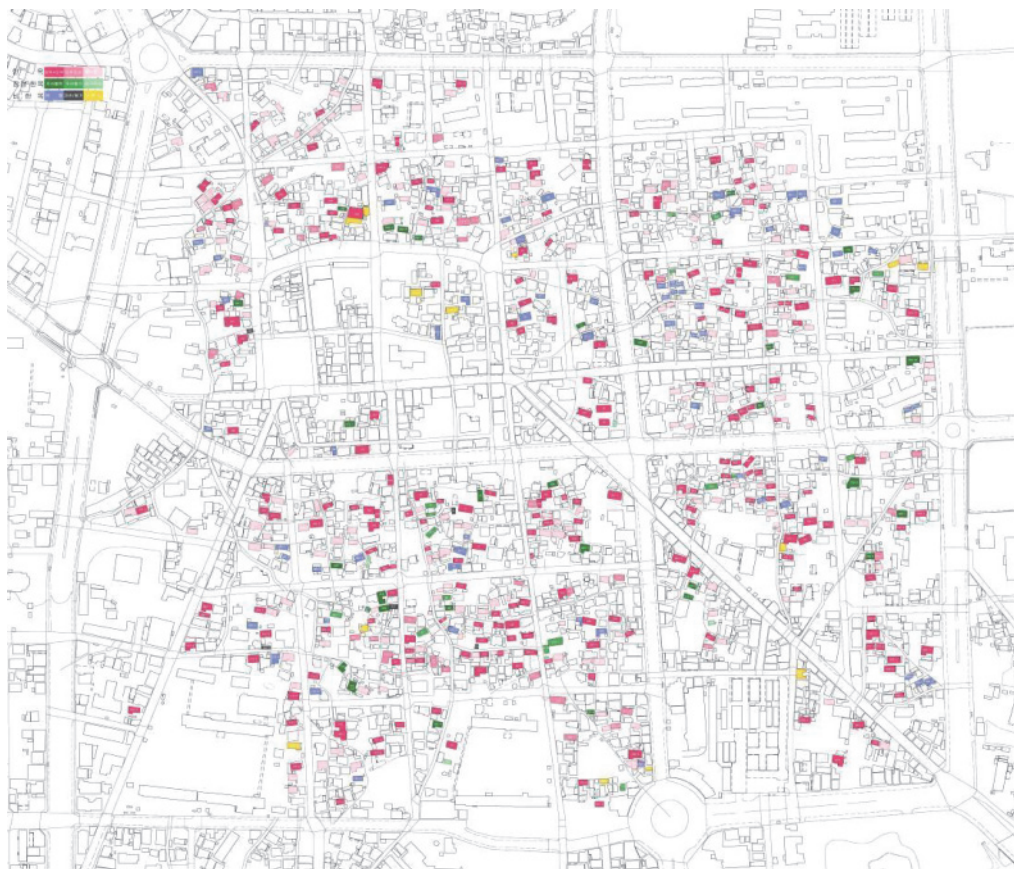
현장 기본조사

현장 기본조사는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주자들의 허락이 있는 경우 내부조사도 함께 수행하였는데, 총 215건을 조사하였다. 거주자들이 내부조사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외부에서만 현장 기본조사를 수행하는데, 총 41건을 조사하였다. 공가이거나 거주인 부재시와 같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조사불가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담장 밖에서 외부조사가 가능한 경우 ‘전수조사’ 방식으로 담장 밖에서 외관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총 158건을 조사하여 가능한 누락되는 한옥의 수를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현장 기본조사를 통해 총 414개의 한옥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전체 조사수 550개의 75.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총 3회 이상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총 55개였다.(전체 조사수 550개의 10.0%) 이와 같은 경우는 3가지 유형이 있어 향후 조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거주자가 현장조사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출입이 불가능하고 외부에서 건축물이 보이지 않아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와 한옥의 형식을 갖추진 하였지만, 대문채, 창고, 부속채 등 비거주용 건물로 조사 제외 대상인 경우이다. 이들은 모두 잠정한옥으로 판정하였다.

구역		기존 조사대상	추가 조사대상	비한옥	철거/파손	소계	
A	가	3	1			4	97 14.7%
	나	10	3	1	2	16	
	다	11		8		19	
	라	13	3	8	3	27	
	마	10	1	3		14	
	바	0		5	1	6	
	사	1	1	1		3	
	아	4	1	2	1	8	
B	가	5				5	91 13.8%
	나					0	
	다	19	2	2	1	24	
	라	10	3	4	2	19	
	마	3	2	1	1	7	
	바	17	3	4	6	30	
	사			1		1	
	아	3	2			5	
C	가	27	4	7	1	39	135 20.5%
	나	2				2	
	다	39	2	7	3	51	
	라	12	1	3		16	
	마	19		1		20	
	바	6			1	7	
D	가	4				4	102 15.5%
	나	15		2		17	
	다	13	2	8	1	24	
	라	20	2		1	23	
	마	10		1		11	
	바	15	1	5	2	23	
E	가	20	1	2	1	24	141 21.4%
	나	16	3		1	20	
	다	41	2	5	2	50	
	라	17	2	5		24	
	마	3				3	
	바	11	5	4		20	
F	가	32	5	2	2	41	94 14.2%
	나	13	3	1	3	20	
	다	7	1	1	2	11	
	라	15	3	3	1	22	
합계		466	59	97	38	660	
		70.6%	8.9%	14.7%	5.8%	100.0%	

사전조사 결과(구역별)

자료: 건축공간연구원. (2021).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기반구축 용역. 광양시



현장 기본조사 결과 한옥, 잠정한옥, 비한옥의 분포 현황

자료: 건축공간연구원, (2021).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기반구축 용역. 광양시

2) 한옥 건축물 일반현황

건축연도

건축물대장에서 건축연도(사용승인일자)가 확인되는 조사대상은 총 378개이며,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가장 이른 시기의 건축연도는 1905년이며, 3개(인서리 205, 목성리 895, 목성리 828-2)가 조사되었다. 1905년부터 1920년대 이전에 건립된 한옥은 20개(5.3%)이며, 1930년대 40개(10.6%), 1940년대 47개(12.4%), 1950년대 29개(7.7%), 1960년대 60개(15.9%), 1970년대 104개(27.5%), 1980년대 75개(19.8%)가 건립되었다. 한옥 건립이 1950년대에 잠시 감소된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1970년대까지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1990년대 이후에는 극히 소수의 한옥(3개, 0.9%)만 건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역별 건축연도를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1970~80년대에 건립한 한옥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양제철소가 1968년에 광양에 들어선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면담조사 결과 광양제철소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옥의 문간채, 사랑채 등에 세를 들어 살았다고 하며, 이후 동광양이 개발되면서 대부분의 기능이 빠져나가면서 광양읍성 내 한옥 거주자가 급속도로 줄어들며 쇠퇴하였다고 한다.

건축면적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면적이 확인되는 조사대상은 총 384개이며 건축면적이 15~30㎡는 78개(20.3%), 30~45㎡는 95개(25.0%), 45~60㎡는 123개(32.0%), 60~75㎡는 63개(16.4%), 75~90㎡는 17개(4.4%), 90㎡ 이상의 한옥은 4개(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면적이 45~60㎡인 경우가 32.0%로 약 1/3의 비중을 차지하며, 30~45㎡는 25.0%, 15~30㎡는 20.3%의 순으로 나타나고, 이를 모두 합하면 77.3%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한옥이 중소규모임을 알 수 있다.

건축시기별 건축면적

건축물대장에 건축연도와 건축면적이 함께 기록된 한옥은 총 378개이다. 건축면적을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1930년대 이전 건립된 한옥 중 30~45㎡는 24개(40.0%), 15~30㎡는 20개(33.3%)이고, 이를 합하면 73.3%에 이른다. 1940년대 건립된 한옥은 15~30㎡, 30~45㎡, 45~60㎡의 비중이 각각 23.4%(11개), 25.5%(12개), 27.7%(13개)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1950년대 건립된 한옥은 15~30㎡가 31.0%(9개)로 가장 높고, 30~45㎡(6개), 45~60㎡(7개), 60~75㎡(6개)의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1960년대 건립된 한옥은 15~30㎡(31.7%, 19개), 30~45㎡(26.7%, 16개), 45~60㎡(31.7%, 19개)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며, 이를 합하면 90.0%로 다양한 한옥이 골고루 건축된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건립된 한옥은 45~60㎡가 49.0%(51개)로 거의 1/2의 비중을 차지하며, 30~45㎡(24.0%, 25개), 15~30㎡(14.4%, 15개)의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지에서 비교적 큰 한옥이 많이 건축된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건립된 한옥은 60~75㎡가 45.3%(34개)로 거의 1/2의 비중을 차지하며, 45~60㎡가 29.3%(22개)로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아 이 시기는 면적이 큰 한옥이 주로 지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기별 한옥의 건축면적 추이를 살펴보면, 1930년대 이전에는 15~45㎡의 한옥이 주축을 이루다가 1940~50년대까지 15~75㎡의 한옥이 고른 분포를 보이며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1960년대 15~60㎡의 한옥이 고르게 건립되며 건축면적이 축소되는 양상을 잠시 보이다가 1970년대에는 45~60㎡의 한옥이 49.0%(51개)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이런 추세가 198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건축면적이 60~75㎡인 한옥이 45.3%(34개)의 비중을 차지한다.

1930년대 이전 건축면적이 30~45㎡인 한옥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60~75㎡인 한옥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광양제철소와 무관하지 않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건축시기별 대지면적

건축물대장에 대지면적이 확인되는 조사대상은 총 359개이며 300㎡(약 90평) 이하인 경우는 73.8%(265개)로 거의 3/4의 비중을 차지하여 비교적 대지면적이 협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물대장에 건축연도와 대지면적이 함께 기록된 한옥은 총 354개이며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1930년대 이전 건립된 한옥 53개 중에서 대지면적이 150~300㎡인 경우가 43.4%(16개), 0~150㎡인 경우가 30.2%(16개)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시기별 한옥의 대지면적 추이를 살펴보면, 1930년대 이전부터 1980년대까지 1950년대를 제외하고 150~300㎡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1960년대까지는 1950년대를 제외하고 150~300㎡의 비중이 40%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1970년대에 50%대를 넘었고, 1980년대에는 60%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 시기적으로 대지면적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대지면적이 0~150㎡인 경우는 1950년대까지 1940년대를 제외하고 30%대의 비중을 차지하다가 1960대부터 20%대로 줄었으며, 1980년대까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대지면적 증가 추세는 앞에서 분석한 건축면적의 증가 추세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평면유형

평면유형이 확인되는 한옥은 총 416개이며 一자형의 한옥은 336개로 80.8%의 비중을 차지하고, ㄱ자형의 한옥은 78개로 18.8%의 비중을 차지하며, 두 가지 평면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ㄷ자형의 한옥(2개, 0.5%)이나 ㅁ자형 또는 기타 유형의 평면유형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건축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378개의 한옥을 시기별로 평면유형을 분석한 결과, 1930년대 이전에 건립된 한옥 60개 중 58개, 96.7%가 一자형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광양지역이 전통적으로 一자형 평면의 주거문화권인 점을 반영한 결과라 판단된다. 이후 一자형의 한옥은 1940년대 95.7%(45개), 1950년대 93.1%(27개), 1960년대 93.3%(56개)로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여전히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평면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ㄱ자형의 비중이 23.1%(24개)로 증가함에 따라 一자형의 비중이 76.9%(80개)로 감소하며, 1980년대에는 ㄱ자형(41개, 54.7%)의 평면유형 비중이 一자형(33개, 44.0%)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一자형의 한옥만 3개가 건립되고, ㄷ자형 한옥은 1960년대에 1개, 1980년대에 1개가 건립되었다.

광양지역에는 전통적인 평면유형인 一자형의 한옥이 건립되다가 건축물 대장에 1933년에 건립된 것으로 기재된 첫 ㄱ자형 한옥(칠성리 336)을 시작으로 일부 ㄱ자형 한옥이 광양지역에 지어지기 시작하였다. ㄱ자형 한옥은 1970년대 급격하게 지어지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一자형 한옥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一자형의 한옥보다 방의 수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ㄱ자형 한옥은 광양제철소의 유입과 관련있으며 외래에서 유입된 한옥 시공업자들에 의해 대량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붕형식

총 417개의 한옥 가운데 팔작지붕은 250개, 60.0%, 우진각지붕은 161개, 38.6%인 것으로 나타나 팔작지붕과 우진각지붕의 비율이 6:4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두 가지 지붕형식을 합하면 98.6%를 차지한다. 그 외에 기타로 맞배지붕이 5개, 1.2%, 확인불가가 1개, 0.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우진각지붕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한옥과 다르

게 용마루가 대단히 짧은 특징이 나타나며 주민면담에서는 배를 만드는 목수들이 집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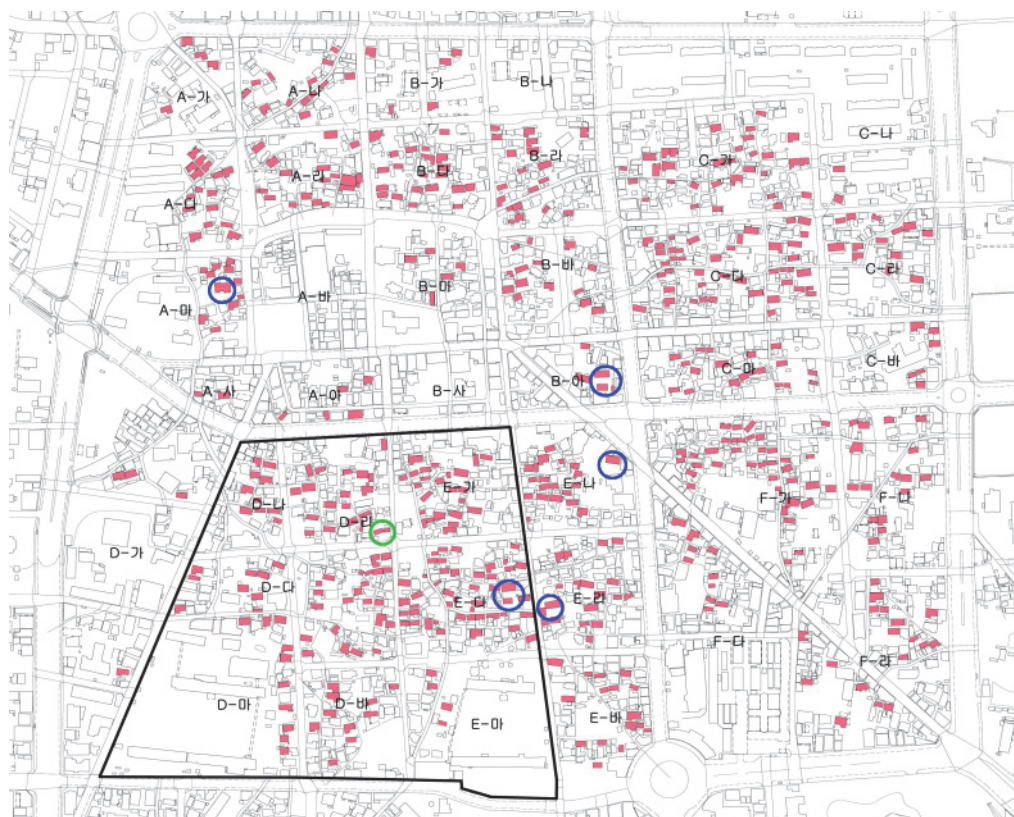
건축연도가 파악되는 것 중 지붕형식이 확인되는 379개의 한옥 가운데 1930년 이전에 건립된 한옥은 우진각지붕이 37개, 61.7%로 36.7%인 팔작지붕(22개)보다 더 우세한 지붕형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960년대까지 우진각지붕과 팔작지붕의 차이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면서 1960년대에는 팔작지붕이 46.7%(28개)까지 증가한 반면, 우진각 지붕은 50.0%(30개)까지 감소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팔작지붕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져서 1970년대 82.7%(86개), 1980년대 88.0%(66개)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우진각지붕은 197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면서 1970년대 17.3%(18개), 1980년대 12.0%(9개)까지 감소한다.

지붕형식은 처음 팔작지붕보다 우진각지붕이 더 널리 사용되었으나 점점 우진각지붕이 감소하고 팔작지붕이 증가하면서 1960년대에는 거의 유사한 비율로 사용되었고, 1970년대 이후에는 팔작지붕이 80% 이상을 점유하면서 우진각지붕은 20% 이하의 비율로 감소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ㄱ자형의 한옥이 외래에서 유입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붕형식에 영향을 주어 우진각지붕에서 팔작지붕으로 형식의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심층조사 사례

심층조사 개요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적인 가치가 높거나 향후 보존 및 활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한옥을 선별하여 실측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측은 약실측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실측의 오차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대부분 거주자와의 면담을 통해 가옥의 내력과 공간사용 방식 등을 채집할 수 있었으나,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 면담도 시도하였다. 거주자와 소유자 모두 면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옥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이 될 수 있도록 몇 차례의 자문을 거쳤다.



심층조사 대상 위치

자료: 건축공간연구원. (2021). 광양읍 한옥 기초조사. 광양시

조선시대 한옥: 인서리 순흥안씨 가옥

조선후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가옥은 광양읍성 남쪽 평지에 밀집된 가옥 사이로 전통방식의 돌담장을 따라 가면 대지의 남서쪽 모서리 부분에 설치된 철제 대문에 이르게 된다.



인서리 순흥안씨 가옥

자료: 건축공간연구원. (2021). 광양읍 한옥 기초조사. 광양시

배치 평지에 안채와 행랑채가 2자형의 배치를 취하며 남향하고 있다. 대문을 남서쪽에 위치시키고, 행랑채를 바로 앞에 배치하였는데, 외부인의 시선을 차단하고, 마당을 바깥마당과 안마당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안채는 전면 5칸, 측면 2칸의 一자형 가옥으로 전후에 퇴칸이 있는 2고주 5량가의 가구구조를 보인다. 행랑채는 과거 일꾼들의 방이었다가 월세를 받기 위해 개수하면서 부엌 등 내외부의 변형이 이루어졌다.

입면구성 및 재료 행랑채는 많은 변형이 이루어져 원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안채는 일부 부엌 벽체를 제외하고 모든 부재의 형태와 재료가 지붕재료까지 완벽하게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으며, 벽장, 찬장, 시렁, 계단, 가구 등 작은 부분까지 원형을 잃지 않고 있다.

내부공간 안채는 부엌-큰방-안청-작은방-골방으로 구성된 一자형의 가옥으로 안청 전면에 문을 설치하여 폐쇄적인 마루 공간을 형성하고 있고 큰방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였다. 부엌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골방 전면에 누마루의 이층구조가 원형대로 보존되었다. 누마루는 제기를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며 누마루 후면에는 골방을 두었는데, 작은방과 누마루로 통하는 작은 문을 설치하였다. 안채 대청으로는 전면에 문을 달고, 큰방에서만 출입이 가능한 작은 문을 설치하였다.

한옥의 역사와 보존 가치 현 건축주(○○○, 1954년생)의 증조부가 곡성에서 이주한 뒤 4대를 이어 거주한 가옥으로 1990년대 조모 사망 후 숙부가 거주했으나, 2년 전 숙부도 사망하여 현 건축주가 순천에서 귀향을 준비 중이다. 아래채는 변형이 심하여 보존가치가 낮으나, 안채는 안청, 부엌, 누마루, 골방의 구조를 잘 보존하고 있으면서 격식도 갖추고 있다. 조선후기 광양지역 一자형 주거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이 가옥은 추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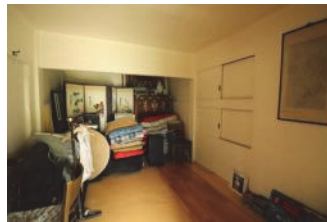


인서리 순흥안씨 가옥(조선시대) 배치도

자료: 건축공간연구원. (2021). 광양읍 한옥 기초조사. 광양시

일제강점기 한옥: 인동리 김해김씨 가옥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이 한옥은 도심 대로변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나 주변 건물에 둘러싸여 시각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이 한옥과 인접한 건물들은 본래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옛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인동리 김해김씨 가옥

자료: 건축공간연구원. (2021). 광양읍 한옥 기초조사. 광양시

배치 평지에 남향하여 안채, 사랑채를二字형으로 배치하고, 대문채 등 부속 건물들이 있었으나 현재 안채만 보존되어 있다. 사랑채는 1962년에 매도하였고, 부속 건물들은 상가건물들을 짓거나 도로를 확장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안채는 전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一자형 가옥으로 가운데 3칸 전면에 툇마루가 있는 평면이다.

입면구성 및 재료 지붕은 전통기와였는데, 2007년 보수시 금속기와로 변형되었으며, 전면의 유리 창호는 1960년대에 설치되거나 교체되었는데, 들어열개 창호는 이때 사라졌다. 안채 전면에 툇마루가 설치되었고, 전면 유리 창호와 대청 창호 등은 1960년대에 교체, 설치되었다. 기단은 1980년대 주변 상가를 건축하면서 인조테라초로 변경되었다.

내부공간 안채는 부엌-안방-대청-작은방-갯방으로 구성된 5칸 규모의 一자형 평면인데, 전퇴에 툇마루를 설치한 전형적인 형식이다. 건립 당시에는 부엌이 식당방과 구분되어 있었고, 갯방은 마루로 된 고방과 작은 정지로 나뉘어 있었으나 현재와 같이 변형되었다. 안채 안방 후면에 미서기문을 달아 고방으로 사용하였던 흔적이 있으며, 부엌쪽 벽장이 보존되어 있다. 안채 대청공간 내부는 변형되었으나 안방 사이의 사분합문은 보존되었으며, 작은방과 출입하는 문은 없다.

한옥의 역사와 보존 가치 김해김씨 안경공파 종택으로 일제강점기에 예전 집 그대로 재건축하였다고 전하지만, 당시 주거양식의 영향을 받아 부엌에 식당방이 생기고 전퇴에 출입구가 생기는 변화가 나타났다. 반대로 갯방은 전통적인 공간구성 방식을 따라 마루로 된 고방과 작은 정지가 있었다. 이렇게 전통성과 근대성을 취사선택하여 건립한 과도기적 근대한옥의 사례로서, 과거의 규모가 축소되고, 창호와 내부구성이 일부 변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인동리 김해김씨 가옥(일제강점기) 배치도

자료: 건축공간연구원. (2021). 광양읍 한옥 기초조사. 광양시

근대 한옥: 읍내리 윤양석씨 가옥

도심에 위치한 가옥으로 주변 상가건물들 때문에 시각적으로 가려져 있어 불리한 경관적 구조를 갖고 있다. 건물 사이로 안쪽에 대문채가 살짝 드러나 있어 출입구를 인지할 수 있을 뿐이다.



읍내리 윤양석씨 가옥

자료: 건축공간연구원. (2021). 광양읍 한옥 기초조사. 광양시

배치 남향하는 一자형의 안채와 아래채를 二자형으로 배치하고, 출입구 방향에 一자형의 대문채와 부속채를 길게 연결하여 ㄷ자형의 배치를 형성하고 있다. 안채와 아래채 사이의 안마당과 대문채와 아래채 측면 사이의 바깥마당이 형성되었다.

안채는 전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一자형 팔작지붕 형태 가옥으로 지붕과 벽체, 창호 일부가 변형되었다. 아래채는 전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월세를 놓기 위해 좌측과 후면이 확장되면서 내외부가 변형되었다. 대문채는 전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중앙에 판문형식의 대문을 설치하고, 좌우에 헛간을 배치했다.

입면구성 및 재료 아래채는 비교적 변형이 심한 편이나, 안채는 부엌 등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특히 대청의 가구구조와 창호, 보아지 장식은 높은 격식을 보인다.

내부공간 ‘부엌-큰방-대청-작은방-갯방’ 형식으로 구성된 一자형 안채는 근대기의 광양지역 한옥에서 보이는 일반적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부엌이 입식구조로 바뀌고, 후면으로 공간이 확장되면서 변형된 점이 아쉬우나 원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있다.

한옥의 역사와 보전 가치 현 건축주가 2016년에 매입한 가옥으로 가옥의 내력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건축물대장 상으로는 사용승인일이 1960년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이곳에 ‘명월관’이라는 고급 술집이 있었고, 고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 가옥은 일제강점기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근대기 한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더러 규모와 격식이 높고, 관리상태도 양호하여 보존 또는 활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인동리 김해김씨 가옥(일제강점기) 배치도

자료: 건축공간연구원. (2021). 광양읍 한옥 기초조사. 광양시

광양 한옥 활성화를 위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안

광양읍 한옥에 대한 현장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를 통해 얻어진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후보지를 선정하여 광양시에 제안한 바 있다. 현재 한옥거점공간(인서리공원)이 있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으로는 칠성리, 읍내리, 인서리 등 3개 리(里)에 걸쳐 위치하며 후보지 북쪽 도로변



건축자산 진흥구역 후보지 제안 지역

자료: 건축공간연구원. (2021). 광양읍 한옥 기초조사. 광양시

의 일부 일반상업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2개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저층 단독주거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구역에는 광양읍 조사대상지 내에 위치한 한옥 중 가장 오래된 한옥이 후보지 내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양질의 한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거용 또는 근린생활 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 250%가 적용되어 한옥을 신축하기에는 큰 제약이 된다. 일반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지면적이 작고 단층 한옥이 주가 되는 상황에서는 그 조건은 큰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므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으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한옥건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해결이 가능하다. 조사 대상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아파트 위주의 개발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구도시에 잔존해있는 광양의 역사를 담고 있는 한옥 위주의 점진적 소규모 개발은 광양시의 역사성 형성과 구도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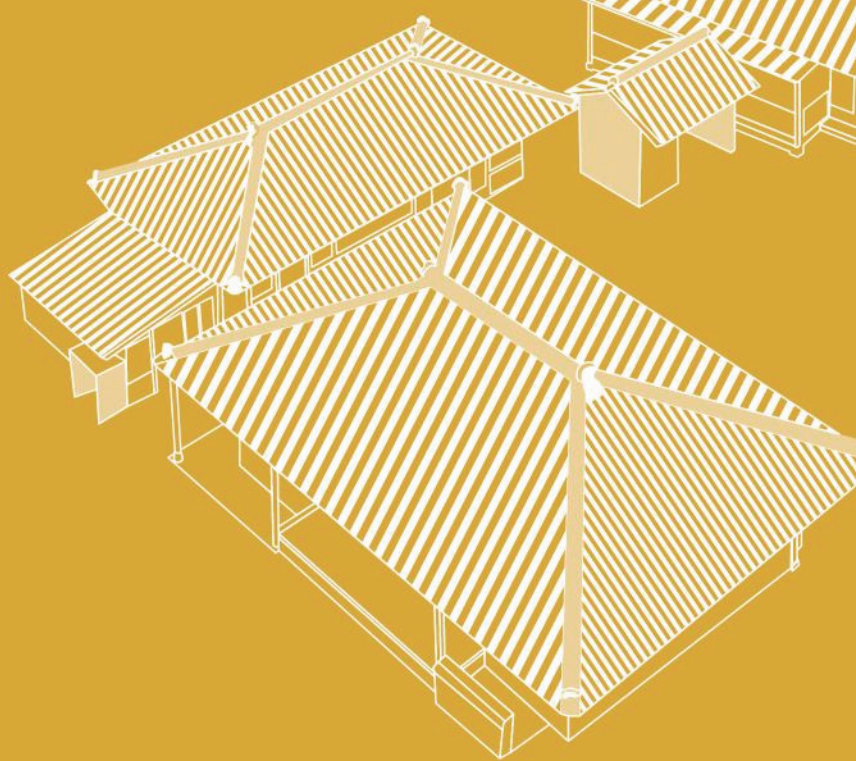


광양읍
한옥,

지역
문화거점을
향하여

Ⅲ

광양읍 한옥거점공간 계획과
구축의 과정



김원천 참우리건축 한옥연구소 소장

광양읍 한옥거점공간의 현황과 계획의 주안점

01. 광양읍 다경당 한옥스테이(인서리19번지 한옥)

1) 연혁 및 현황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19번지에 위치한 인서리한옥은 대지면적 753.37㎡ 땅 위에 건축면적 122.25㎡로 총 3동으로 나뉘지는데 이 중 본채는 73.83㎡로 수선 및 증축했고, 별채는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34.56㎡로 다시 지었으며 대문채는 13.86㎡의 규모로 새로 만들었다. 건물의 용도는 광양의 주거양식을 보전하여 이를 체험시킬 목적으로 한옥체험시설로 운영이 가능한 단독주택으로 정했다. 차량출입이 불가한 도로상황에서 대지 내에 주차장설치가 어려웠기에 50㎡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증개축해 건폐율은 16.23%며 용적률은 모든 건물이 지하층 없이 단층으로 건폐율과 동일한 16.23%이다. 기존건물 수선을 포함해 개축 및 증축한 건물까지 전통한옥의 맞춤과 이음기법을 활용한 한식목구조를 가진다.

인서리한옥은 전면(남측)에 너른 마당을 두고 본채를 남향으로 배치했고 좌우에 창고와 별채를 둔 광양읍의 전형적인 한옥의 특징을 보여준다. 평면은 대청을 중심으로 누다락-방-대청-방-부엌 구성의 一자형으로 부엌 상부에는 다락이 있었고, 정면5칸으로 주칸은 8자반~9자 크기이며 측면은 두칸 겹집으로 방과 대청의 경우 전면에 툇마루를 두고 실내를 한칸 반으로 깊게 구성되어 여름철 통풍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측면과 후면에는 툇마루를 두었습니다. 기단은 자연석으로 일벌대이며 상부면은 삼화토미장으로 마감되어 있었다. 눈길을 끄는 주초석은 화강석을 다듬었는데 모서리를 둥글게 담듬어서 자연스러운 형태를 가진다. 초석 위 기둥

은 안채의 경우 방형단면으로 한 변이 5치반으로 별채에 비해서 반자~1자 정도를 키웠다. 주요구조의 짜임은 2고주5량이며 창고상부 누다락의 노출천정은 뱃머리 형상의 우미량이며 부엌상부는 층량을 걸어서 공간의 성격에 맞는 짜임을 보여준다. 지붕의 형태는 본채는 팔작지붕으로 한식 그을림기와와를 이었고, 처마끝 막새기와는 태극문양과 꽃모양으로 마감했다. 한옥이 정확히 언제 지어졌다는 공식적인 문서로 남은 것이 없는데다 상



광양읍 인서리 19번지 전경과 상량문

© 참우리건축

량도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연대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2018년 광양시가 매입하기 이전까지 소유주였던 우선근씨의 구술을 통해 고조부께서도 사셨고 증조부께서 건축후 조부께서 개축하셨다는 개략적인 건립 연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의 조부께서는 1944년 돌아가셨으니 100년은 훨씬 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었는데 수선공사를 시작하면서 기와를 내리고 흙을 털어낸 후 대청마루 부분 종도리를 들어내자 종도리 장혀 상부에 신유년 8월 3일 상량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었는데, 이를 통해 신축시 상량문을 썼거나 우선근씨의 증언에 따라 증조부가 1921년에 개축하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우씨 일가는 1975년까지 이곳에 거주했다고 하는데 본채는 조부께서 개축하신 이후 크게 손 댄 적이 없어서 구조는 원형에 가깝지만 식당과 부엌을 현대식으로 만들면서 한옥의 동측에 식당과 찬방으로 쓰일 공간을 달아내어 입식생활이 가능하도록 개량했다고 전했다. 대문의 위치는 의외의 출입구를 알려줬는데 원래 대문의 위치는 대지의 북서측에 있었고 수선전 창고로 사용되었던 서측 별채가 아래채 역할을 했다고 하며, 기존 대문이 있던 자리 현재는 지적이 나뉘어진 남쪽 인접대지에 위치한 한옥이 사랑채여서 내부에서 통하게 되어있었는데 나중에 매매했다고 전했다. 이곳 사랑채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셨는데 일제강점기 중앙보통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으러 전국을 다녔던 인촌 김성수가 이 사랑채에 머물며 학원설립에 기부를 요청했고 우선근님의 증조부께서 당시 지금으로 환산하면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논밭을 팔아 기부하셨다고 전했다.

우씨일가가 서울로 이주한 1975년 이후에는 여러 세입자가 거쳐 갔지만 한옥의 관리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서 안채는 원형 그대로 남았고, 별채는 지붕누수와 기둥 밑 부식으로 폐허상태가 되었다. 이후 주거역사재생을 목표로 광양한옥 중 원형에 가깝게 보전된 이곳을 2018년 광양시에 매입했고 2019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대수선 및 증축공사를 진행하여

2022년 초 공사를 완료했다. 2018년 매입 시 동쪽의 폐허건물이 있었는데 이 때 함께 매입해 합필하여 본체가 있던 인서리 20번지가 인서리 19번지로 통합되었고, 폐허건물은 철거 후 마을공원으로 바꾸었다.

인서리19번지는 구불구불한 골목을 따로 마을의 가운데로 한참을 들어와야 진입이 가능한데 골목의 폭이 차 한 대가 지나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데다 남쪽으로 진입하는 길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마을 블록의 중심에 접도를 최소화한 후 입구도 북서쪽 막다른 좁은 골목으로 둔 것이 이상해 마을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니 이 지역이 1,000년이 넘는 읍성 중심부에서도 중심에 위치해 역사적으로 해적이나 왜구의 침입이 잦은 곳이었다고 한다. 특히 인서리 중심부는 부자가 많이 살던 곳으로 침입에 대비해 안채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집을 짓고 외부에는 소작인들이 살게 하고 안쪽에 주인이 사는 마을구조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래서 인서리19번지 일대의 집을 마을사람들은 ‘내집’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소작인 등의 집으로 겹겹이 둘러쌓아서 산적이나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재물과 사람을 보호하려한 유지들의 집이었던 것이다.

항공사진을 보면 실제로 인서리19 일대를 작은 필지들이 둘러쌓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광양제철소 건립으로 새로운 집들이 지어질 때 상대적으로 건물짓기에 불리한 위치인 이곳이 원형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개발과 침입이 어려운 장소라는 특이성이 가져온 보전의 한 유형인 것이다. 덕분에 인서리한옥은 남향의 너른 마당과 一자형 겹집의 형태 등 광양한옥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 외에 위도 상 한반도 남쪽이어서 평균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광양 지역의 주거로서 수목의 배치 및 남북으로 폭이 긴 방과 대청의 평면구성이 냉난방시설은 물론 전기조차 없던 시기부터 지어 살아온 옛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도 잘 보존된 한옥의 모습은

단순히 마을내부 위치와 구불구불한 길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더해 인서리한옥의 기와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전면 솥막새에 태극문양이 보인다는 것이다. 우선근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증조부께서 개축할 때 설치한 막새기와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전했다. 일제강점기라는 서슬퍼런 시절에 태극문양을 전면막새에 넣었다니 대단한 기개가 아닐 수



광양읍 인서리 19번지 한옥 지붕, 독특한 문양의 솥막새와 망와

© 참우리건축

었다. 다만 대청하부에 폭 2m 길이 3.6m의 방공호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 피신을 위한 대비를 해뒀던 것을 알 수 있다.

해체 시 한식기와 및 회미장벽 등 재료를 가공하고 제작한 모습이 잘 남아 있어서 기록을 남겼는데, 미장의 경우 흙과 회, 시멘트 및 도장 등 세월에 따라 변화한 마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벽지는 1970년대 후반이후 제품들을 뜯어보니 안쪽에 일제 강점기 신문지를 붙인 흔적을 볼 수 있는데 방의 경우 서까래와 치받이, 심지어 도리와 보의 일부분까지 신문지로 도배를 해서 방한을 위한 대책을 세웠던 것 같다.

지붕의 형태는 팔작지붕으로 우진각지붕이 주류를 이루는 광양읍내 한옥들과 비교해 격이 높아 보였으며 특히 측면 두 칸의 단면 길이로 인해 용마루가 매우 높이 위치해 웅장해 보이는 효과를 낸다.

상량문과 마찬가지로 해체 후 전통부엌 및 아궁이 그리고 구들의 흔적이 잘 남아있었고, 구들부분의 통풍이 잘 돼서 인지 하방과 기둥하부 등 부식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수선 시 기존목재를 존치하는데 유리했다.

인서리한옥이 특히 광양한옥을 대표할만하다 판단했던 것은 세살문한지창과 창고의 널판문 등 오래 전에 제작한 창호가 잘 보존되어 당시 광양전통한옥의 외형을 잘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정의 경우 부엌은 아궁이의 연기로 검게 그을려져 있었고, 대청과 뒹간은 치받이가 탈락해 갈라진 부분도 있었지만 원목의 상태가 양호했고, 서까래 내목이 외목에 비해 길어서 구조가 안정되어 있었다. 창호지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낡은 부분이 많았으나 드러난 창호목재와 철물의 상태는 좋았다.

백년된 목재의 짙은 색감과 화강암계 기단석과 덧돌이 고택의 품격을 나타내며 또한 세월의 때가 묻은 기와와 박공의 문양이 조화로웠고 잘 보존된 박공미장과 철물은 재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마당은 오랫동안 방치된 데다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악취가 나는데다 여름철은 모기가 너무 많았다. 여기에 더해 오래 전 대문이 위치했던 별채는 북쪽 한 칸의 지붕이 완전히 붕괴되어 구조적으로 위험했고 건물에 연결된 토석담도 관리가 잘 안되어 수목과 넝쿨 등으로 뒤덮여 있고 노후화 되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마당의 화단의



광양읍 인서리 19번지 한옥 지붕, 독특한 문양의 솟마새와 망와

© 참우리건축

형상은 하늘에서 봤을 때 한반도 모양이었는데 여기에 심어진 동백나무는 주인이었던 우선근씨가 태어난 후 심었다고 하는데 1960년 전후로 추정된다. 그 옆의 향나무까지 포함해 오랫동안 집을 지켰던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지 남동측에 위치한 대문은 철재로 제작했는데 경첩이 녹슬어 대문이 처졌고, 시멘트미장으로 마감된 문주는 기초가 약한지 기울어져 위험한 상태였다. 대문 옆 창고는 플라스틱 슬레이트로 벽과 지붕을 만들었고, 합판으로 열기설기 엮어봐서 흉물처럼 보였다.

2) 건축적 특징

위치 및 주변현황

인서리19 한옥은 옛 광양읍성의 남쪽면 옛 남문의 정면으로 난 남문길변 옛길 안쪽에 위치하며 1980년대 격자형 도로에서 남문길을 따라 블록 안쪽으로 나있는 옛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야 대지로 진입할 수 있다. 특히 북서쪽으로 난 짧은 골목에 인접한 별채 쪽으로 진입대문이 있었다고 하니 읍성 내 주요도로 방향으로 출입문을 위치시킨 것을 알 수 있으며 안마당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별채와 담장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다. 이는 길과 건물로 겹겹이 둘러쌓아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북서쪽 막다른 골목을 공유하고 있는 대지 북측의 주택은 우선근씨의 외할머니의 집으로 사돈관계였는데 일제강점기 때 방화로 새로 지은 한옥과 별채양옥 그리고 인서리19번지 한옥의 별채와 마주한 대문으로 구성되어 친족끼리 골목을 함께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광양읍 인서리 19번지 한옥 본채, 식당채, 대문채

© 참우리건축

배치 및 평면

대지의 남측은 너른 마당을 두고, 남동해안형 一자형 평면의 본채는 마당의 북쪽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기존 부엌의 천정과 누다락의 구조를 그대로 보존해 원형을 체험하도록 했으며 골목과 접한 대지의 동남쪽 모서리에 우물과 누마루가 딸린 대문채를 두었고 골목 쪽으로 뒗마루를 두어 마을 어르신들이 오며가며 쉴 공간으로 만들었다. 서쪽에 별채는 철거 후 비슷한 건물너비를 가진 식당채로 계획했는데 기존 안채의 부엌을 체험시설의 거실로 활용하면서 필요한 부엌과 식당을 별채로 옮겨서 쓸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별채의 북측면이 담장과 맞닿아 있었으나 별채를 개축하면서 남쪽으로 이동시켜 안채와 사이에 북서측 마당을 두고 향후 옛 대문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광양한옥의 원형이 보존된 본채는 기존의 평면과 구조를 모두 살리면서 2고주5량집의 특징을 살려 전후면 퇴칸을 활용했다. 전퇴는 마루를 그대로 재사용해 마당에서 신발 벗고 올라올 수 있는 입구의 역할과 함께 방과 방을 연결하는 복도의 기능을 살렸다. 서측면은 2칸의 겹집의 구조를 살려 화장실과 누다락을 배치한 후 북측으로 창을 내고 연결복도를 만들어 다락으로 올라오는 계단으로 연속되도록 했다. 남동해안 一자형 한옥의 특징은 남북으로 긴 방과 대청을 뒗마루로 연결하는 특징을 갖는데 이를 이용해 한옥스테이의 유닛별 이동이 용이하도록 실을 배치했다. 식당채는 정면4칸 측면2칸으로 부엌과 식당이 벽체 없이 통으로 3칸이 열린 구조로 만들어 연등천정에서 시원한 공간을 느끼며 먹고 담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 한옥스테이의 특징인 위케이션이 가능한 공간으로 일도 하고 쉴 수 있는 기능을 넣었다. 대문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3량가 一자형 집으로 평면을 잡았는데 남쪽 길과 면한 칸에는 대문을 배치했고 우물이 있던 자리는 지붕을 두어 수도가 없던 시절 수원이며 생명과 같은 물을 보호하는 의미를 부여했다.

건축양식 및 입면

본채는 대청마루, 툇마루, 아궁이가 있는 부엌과 상부 다락, 구들방 등 전통한옥의 특성과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옥스테일로 변경하면서 목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되 2개의 유닛을 두기 위해 기존 부엌이 있던 자리를 거실로 바꿔서 마당-툇마루-거실-방-화장실(욕실)이라는 공공영역에서 사적영역으로 점진적으로 사적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간을 연결했다. 하지만 입면은 원형에 가깝게 최대한 유지해서 오래된 정취를 살리고 내부에서 외부로 열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입면 또한 내부 공간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문과 판문, 판벽으로 구성하고 외부는 창호지보다 이중유리를 설치해 단열에 신경을 썼으며 전면 창호들은 세 살, 만살, 용자살 등으로 계획해 간결하면서 소박하게 입면을 구성했다. 특히 기존창호 두께가 얇아서 장여폭의 문선에서 설치가능했던 문의 두께가 커지면서 별도로 문틀을 덧대어 1.5배 정도 늘어난 창호를 제작 및 설치할 수 있었다.

이렇듯 지붕아래 기단상부의 목재부는 소박하고 간결했던 반면에 태극문양이 새겨진 막새기와와 망와 등을 사용한 팔작지붕은 소박함보다는 집의 위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도록 가능한 존치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대문채와 식당채는 전통 한옥의 가구맞춤 구조에 각서까래를 얹었는데, 이는 광양읍에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한옥의 구조를 간결하게 해서 누구나 쉽게 지을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 광양한옥의 전형을 만들고자 했고 특히 지붕재료를 한식그을림 기와가 아닌 그 위에 개판과 단열재를 얹은 후 동판으로 마감했는데 이는 광양제철소 건립 즈음 지어진 한양절축식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주택의 지붕이 골슬레이트 또는 철제가 사용된 점을 비추어 향후 지어지는 한옥의 비용도 낮추고 광양한옥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게 위해 계획했다. 이는 본채와 대비되는 현대적인 이미지를 나타냄과 동시에 시공과 유지관리의 편의를 고려했다.

재료 및 기타

재료는 원형을 최대한 살린 본체의 경우 고색의 목재와 어울리도록 짙은 색의 마감재를 설치했으며 짙은 색과 대비되는 한지와 함께 삼베천 등을 활용해 내부 인테리어를 완성했는데 낡고 부식되어 교체한 툇마루도 고색으로 칠을 해 전체적인 분위기를 오래된 듯한 느낌으로 맞추었다. 반면에 새로 지은 별채와 대문채는 밝은 톤의 나무와 대비되도록 시간이 지나며 기와색처럼 진해지는 동판으로 마감해 안채와 대비되면서도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광양읍 인서리 19번지 한옥 입면

© 참우리건축

본체의 재료 중 가장 특징적인 태극문양의 솥막새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체 후 보관했는데 가능한 재사용하였지만 일부 부족한 수량은 태극문양 형틀을 별도로 제작해서 찍어냈는데 이를 통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기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양한옥의 도시재생시 다른 한옥에도 태극문양 솥막새 그리고 암막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형틀을 보관하도록 했다.

3) 수선 및 증축 계획 내용과 주안점

계획 방향 및 개념

실측을 통해 한옥의 원형을 확인한 후, 재활용 또는 존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에 더해 광양한옥의 특성을 살려내 새롭게 증축하는 부분의 유형을 정하고 장소적가 지닌 가치와 새로운 기능적 특성, 가능성을 판단하여 전체적으로 옛 것과 새 것이 조화로운 유지 및 철거, 보수계획을 세웠다.

부식된 목구조나 통풍을 막거나 집의 환경을 저해하는 공간과 무분별하게 증축한 부분은 철거하고 그 외 한옥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시간에 따라 만든 시설이 생활의 편의를 고려한 부분이 크고 기존건물과 조화롭다면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해체 전에 보이지 않아서 계획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앞선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사 중에도 보전계획을 세워서 존치를 결정해야 한다.

기본 구상

활용방안 광양한옥의 특징을 간직한 본체를 비롯해 대지와 주변마을을 고려하고 길에 맞춰 배치된 별채와 대문, 우물과 담장 등 그 원형을 살려서 전통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으로 활용하되 단독주택에서 운영이 가

능토록 한옥체험시설로 등록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는 단순한 숙박이 아닌 공간에 머물며 오랜 한옥이 주는 느낌을 경험하고, 그 깊이를 느끼며 함께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리모델링 원칙 정면5칸 측면2칸의 남동해안형 一형 한옥의 평면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뼈대를 보전하고 증축으로 목구조가 가려진 부분이 있다면 원형을 살리고 창고하부 아궁이는 살리되 보일러실로 활용해 원기능과 유사한 현대적인 시설을 설치하고, 땅보다 낮았던 부엌은 향후 습기 및 누수에 대비해 바닥을 높이도록 했다. 창고 위 다락 등 전통적인 공간을 유지하되 방음과 방한에 유리하도록 현대기술을 접목한 벽체를 구성하였다. 배를 만들던 목수들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로 뱃머리를 연상토록 하는 우미량은 가능한 노출시켜 눈으로 보고 경험토록 하며 다락에서는 이를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기타 주거와 지원시설에 필요한 현대식 부엌공간과 보일러 등 설비공간은 별채에 배치해 숙박과 분리해 간섭이 없도록 하며 남동쪽 창고를 철거하며 발견된 기존 우물은 대문채를 신설하여 보호하면서 향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외에서 진입이 용이토록 하였다.



광양읍 인서리 19번지 한옥 입면

© 참우리건축

수선 계획

본채 및 주변에 증축된 부분들은 철거하여 한옥 목구조를 온전히 드러나게 하면서 목구조 주변이 통풍이 용이하도록 해서 구조가 오랫동안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아궁이, 다락, 툇마루, 쪽마루 등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되 에너지 사용저감 및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흙벽은 철거하고 건식공법을 적용해 단열 및 실별 방음성능을 높이면서 실내에 내부에 덧창 추가하였다.

오랫동안 방치해서 이미 폐가화 된 별채는 철거하고 창고기능과 본채에서 부엌의 기능을 없애고 커뮤니티 시설로서 식당채로 짓고, 기존에 있던 낡은 대문, 외부 화장실 철거하도록 했다.

도로와 접하여 있으나 접도면이 매우 작고 진입로가 협소하여, 도로면에 위치한 창고와 인접대지 건축물도 철거하고, 인접대지와 합필하여 충분한 접도면적과 진입공간을 확보한 후 인접대지는 골목과 연계해 공원을 조성하고 안채와 공원사이에 대문채를 신축해 기존필지를 구분하여 흔적을 남기기로 하였다.

새로 짓는 부속동의 지붕은 차량진입이 어려운 위치와 비용을 절감하면서 단열성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구성해 노후화되거나 누수로 인해 관리가 어려워진 한식기와 지붕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보여주며 광양제철소와 함께 발전해 온 광양읍에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한식 목구조 및 동판지붕으로 별채와 대문채를 증설하고 한옥체험시설의 부속공간 및 지원시설로 활용하도록 했다.



광양읍 인서리 한옥체험시설 계획안

© 참우리건축



1



1



2

광양읍 인서리 한옥체험시설 증축(신축) 계획도 및 조감도

© 참우리건축

4) 공사 과정과 변경된 계획

공사진행 순서 및 변경이슈

철거 초기에는 처집이 심한 부위의 추녀 및 박공 일부만 교체하고 부분 번와를 논의했으나, 기와 해체 후 서까래 상부의 부식 상태를 확인한 바 시공사 및 감리자와 전문가들이 지붕가구의 보수와 부재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고 당초 계획을 변경해 기와 전체를 번와하고 부식이 심한 서까래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80% 이상 서까래 교체의견에 대해 현장에서 조율하여 온전한 서까래를 전면으로 배치하고 후면부 서까래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기존 서까래를 재사용하기로 했다.

해체를 하니 2고주 5량의 가구구조이지만 장연과 단연의 구분 없이, 하나의 장재(長材)로 이루어진 서까래가 처마도리에서 종도리까지 걸쳐있음을 확인했다. 외부에서 보이는 지붕물매는 중도리-종도리 구간에 상부 덧서까래를 얹어 지붕의 물매를 형성하였으나, 처마도리 부근의 물매가 낮아 물이 많이 고여 서까래 상부 부식이 많았다. 현장 시공자와 감리자와 확인하여 서까래의 교체 범위 및 재사용 범위를 하나하나 결정하였고, 후면 처마도리 이하의 서까래는 썩은 경우가 다수였으므로 부식된 부분만 잘라내어 짧은 부재인 단연으로 재사용하였다.



광양읍 인서리한옥 창고 및 별채 철거 사진

© 참우리건축

기존 별채의 목구조는 손상이 심해 철거하여 폐기물 처리했지만 기와는 읍내리 383의 일식 일체형기와와 유사하여, 해체를 통해 기와를 최대한 보존하여 읍내리 한옥 지붕 수선 시 활용하기로 정했다.

본체의 기와는 문양과 형태가 독특했는데 특히 전면부 솟막새는 태극문양 이어서 부족한 수량은 기존 기와를 본 따서 형틀을 제작해 같은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향후에도 이 형틀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같은 막새를 생산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시멘트미장으로 마감되었던 기단은 철거 전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시멘트 미장면을 철거하니 100년 전에도 석재를 재활용



광양읍 인서리 한옥 지붕 해체 및 수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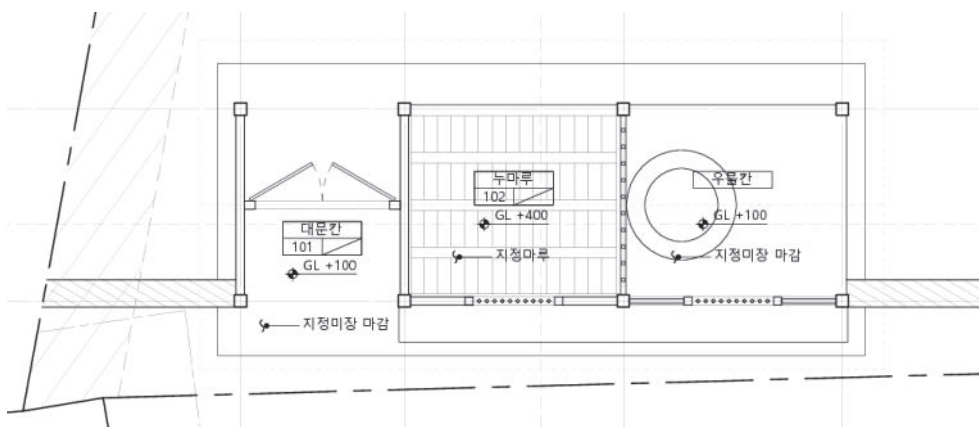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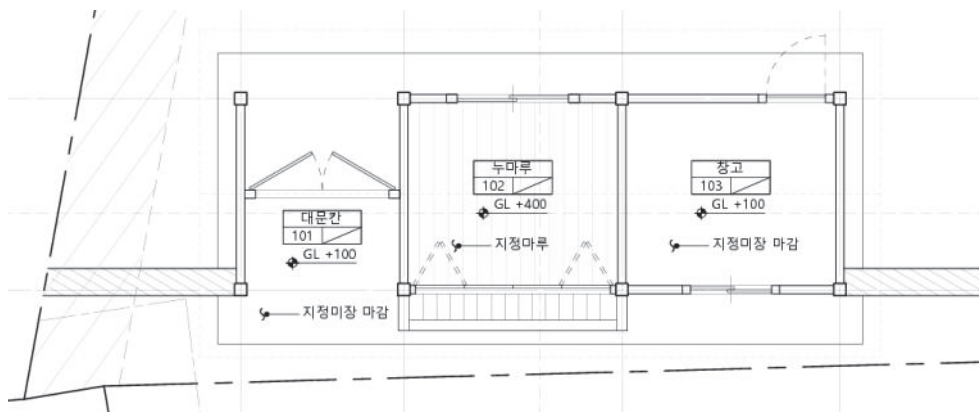
© 참우리건축

해 만든 기존의 자연석 기반 확인했고, 이를 존치하고 드러내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또한 기존 대문 및 창고, 장독대 등을 철거하고 우물을 발견하였으나 신설 예정인 대문채의 위치와 겹쳐, 우물을 살리는 방향으로 기존의 대문채 배치와 창고칸 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였고, 대문칸과 창고 등 세 칸으로 계획되었던 대문채를 대문칸과 우물, 마루칸으로 변경 계획해 시공하였다.



시멘트 미장을 걷어 낸 후, 창고 철거 후, 우물 보존 사진

© 참우리건축



광양읍 인서리 한옥 대문채 기존계획안(위)와 변경계획안(아래)

© 참우리건축

5) 지붕재료 이슈

지붕재료의 변화, 광양한옥의 특징으로 볼 것인가?

주거역사재생을 목표로 5년간 진행된 광양 한옥거점공간 사업의 진행 중 설계 때부터 시공되는 순간까지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지붕재료였다.



광양읍 인서리 한옥 인포메이션 건물의 지붕

© 참우리건축

애초 광양제철소라는 국가산업단지를 품은 상징성을 고려해 주민과 전문가들이 한옥의 지붕을 철판이나 동판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식기와가 아닌 다른 재료를 쓴 건물을 한옥이라 부르지 않았다. 심지어 시멘트기와를 얹은 80년대 지어진 집은 한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한옥이 기와를 얹은 목구조 집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지가가 서울이나 수도권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광양읍에 위치한 한옥의 지붕공사 비용은 이곳의 사람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것이었다. 한옥이 노후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지붕의 누수로 인한 것인데 유지 및 공사비 감당이 어려워 방치되거나 빈집으로 폐허가 되는 한옥이 다수인 상황을 목격한 입장에서 한식기와만이 한옥의 지붕재료여만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비가 새지 않고 오랫동안 관리가 용이하다면 한식목구조의 따뜻함과 재료가 주는 감촉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한옥재생의 성패는 철을 비롯하여 쉽게 구할 수 있고 내구성이 좋으며 물에도 강한 새로운 지붕재료를 한식목구조와 조화롭도록 계획하고 이를 보급하는데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광양읍에서 보았던 다양한 지붕재료의 발전과 보급이 중요하며 이를 광양한옥의 특징 중 하나로 인식하고 확산시켜야 나와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이 오랫동안 살았던 건물을 부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02. 광양읍 한옥거점공간(읍내리 383번지 한옥)

1) 연혁 및 현황

읍내리383번지 한옥은 대지면적 1,446㎡에 건축면적 277.33㎡로 총 6동의 건물이 위치하는데 모두 기존에 있던 건물을 수선 및 증축했다. 원래 필지가 총 4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읍내리 383, 384에 있던 한식목구조+블록조로 한옥과 양옥이 혼합된 양식인 건물은 115.38㎡ 휴게음식점 중 북카페로 계획되어 한옥거점공간 중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대지의 북쪽 부는 필지통합 전 읍내리 364-2외 1필지로 3채의 한옥과 2채의 철근콘크리트조가 대지전체에 배치되어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점, 단독주택, 창고, 휴게음식점으로 계획하여 용도에 맞게 증축했다. 주차대수는 2대로 남문길에 인접한 곳에 주차가능토록 계획했다.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인서리 383번지로 합병되었다. 공사 전 건물은 전면에 너른 마당을 두고 후면에 텃밭을 두고 본채를 남향으로 배치했고 동측에 대문칸과 별채가 안마당을 바라보고 서향으로 배치된다. 대문채는 대문칸과 창고 두 칸으로 구성되고 본채는 대청을 중심으로 양쪽에 방이 있는 방-대청-방-부엌의 一자형 평면을 가지며 정면4칸, 측면2칸 겹집구조로 주칸은 8자~9자, 퇴칸은 4자 반 크기로 구성된다. 대청마루 하부에 지하 창고 공간이 있었고 대청과 부엌 사이 방 상부에 다락이 있어서 一자형 한옥의 내부가 다채로웠고 방과 대청 전면에만 칸마루를 두었는데 돌출된 형식의 3칸짜리 미서기 레일이 설치되어 반칸마루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 별채는 방-대청-방의 구성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철거당시 현저히 변형되어 원형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계획을 통해 모서리에 현관을 달아내었고 거실-방-창고로 구성된 실내공간을 두고, 북측 면에 아궁이가 설치된 외부 주방을 배치했다. 별채는 정면3칸 반, 측면1칸반 구성으로 퇴칸은 4자, 주칸은 8자~9자 크기로 구성된다. 초석은 전체적으로 인조석 물갈기로 매끈하고 기단은 화강석을 다듬은 것과 자연석이 혼합되어 있다. 본채 및 별채의 기둥은 4치~4치반 방형기둥이며 가장 오래된 본채의 단면은 2고주 5량가이며 측면은 총량 및 우미량으로 구성되어

광양한옥의 평면특징을 보여준다. 지붕형식은 우진각으로 암수일체형 기와를 사용했는데 그 모습이 흡사 일식기와와 유사하다.

2018년 광양시가 매입하기 이전까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건축주는 2011년경 집을 매매하여 이곳으로 이사 왔고 당시 현재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1930년대에 건축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건축주가 이사 올 당시 처마 끝까지 실내 공간을 확장한 형태나 현대식 부엌과 화장실 등 대부분의 수리는 이미 이루어져 있었고 내부의 도배 및 장판과



광양읍 읍내리 383번지 한옥 수선 전후 전경

© 참우리건축

뒤편의 창호 일부만 새로 손보았다. 안채에는 당시 건축주와 부모님이 거주하고 별채를 아들 둘이 나눠 썼다고 한다. 마을 어른들에게 듣기로는 이 집을 건축하신 분의 형님이 일본에 사시던 부호여서 당시 일본에서 많은 도움을 줬고 자재 조달도 해주었다고 하며 마을 사람들이 이 집을 일본식 한옥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읍내리383 전면에 미곡창고(현 반창고)가 있는데 이 건물도 소유했던 당시 가장 부유한 집이었다고 전한다.

대상 한옥은 기존에 읍내리 364-2번지였으나 뒷마당으로 활용하던 360-2번지 및 남측 인접대지인 383번지, 384번지 한옥과 함께 녹색카페 및 요리교실,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주민이용시설군으로 대수선하며 합필하여 현재는 383번지로 통합되었다. 친일파의 집으로 알려졌기에 인서리 19번지 한옥과 대비되는 한옥이지만 일제강점기 지어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한옥으로 목구조와 기와 등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인서리19번지 한옥과 마찬가지로 큰 길에 면하지 않고 골목 안쪽에 위치, 읍성 남문에 면한 블록의 왼쪽 중심부에 위치한다. 본채의 앞뒤로 넓은 마당을 두었고, 대문채와 별채 외에도 아궁이가 있는 외부 주방, 물치, 지하병커가 있는 창고 등 부속 공간 등이 대지 전체에 골고루 다양하게 배치되었으며 굴뚝, 지하창고, 다락 등 건물 내외에 활용 가능한 요소들이 다양하게 남아있어서 이런 요소를 살리는 것만으로도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줄 수 있었다. 특히 마당에 들어섰을 때 모든 건물의 외벽이 강돌로 된 화방벽으로 둘러져 있었고 뒷마루 하부의 경우도 강돌로 고막이를 설치되었고 텃밭과 건물의 단차부 그리고 담장 하부와 창고벽 등도 강돌로 설치하여 구조를 이루는 재료와 규모가 다름에도 통일감을 주었다.

안채의 경우 일식지붕의 상태가 좋아서 해체보수를 하지 않아 상량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별채에서 나온 상량문을 확인한바: 歲在甲申十月初八日未時定礎同十九日辰時立柱上樑 (갑신년(1944년 추정) 10월 8일

미시(오후 1~3시) 정초 그리고 같은 달 19일 진시(오전 7~9시) 입주 상량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해방되기 직전이지만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집으로 추정된다.

한옥은 면적에 비해 기둥과 보 등 부재 크기가 크지 않으며 보, 도리 등의 상부 가구재는 전통 한옥에 비해 얇고 세장해서 당시 일본의 목구조양식을 가미한 것으로 보인다. 암수기와가 일체형으로 이루어진 일본식기와를 이었는데 용마루와 추녀마루 적새기와 하부를 회미장으로 받침으로서 일식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다. 하지만 평면과 입면을 보면 광양의 여러 한옥에서 볼 수 있는 부역의 내민 창 형태를 유지하였고, 그 위치도 건물의 동편으로 유사했다.



광양읍 읍내리 383번지 별채 상량문

© 참우리건축

2) 건축적 특징

위치 및 주변현황

인서리19번지 한옥이 위치한 블록의 반대편 옛 광양읍성의 남쪽, 옛 남문의 정면으로 난 남문길변에서 골목으로 진입 가능하지만 골목으로 진입하여 꺾어 들어가기 때문에 큰길에서 인식하기 어려운 위치여서 광양의 부유한 집들의 특징을 엿볼 수 있으며 건물의 특징만이 아니고 길과 담장, 건물의 위치까지 집의 특성을 이루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배치 및 평면

유일하게 길과 연결되는 대지의 동남쪽에 대문채가 있고 이를 통해 마당으로 진입하면 전면에 마당을 두고 一자형 평면의 본채가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문채의 북쪽이자 본채의 동쪽에는 본채와 마찬가지로 一자형인 별채가 서향으로 배치되었고 대문채와 별채 사이에 우물이 남아있어서 안채의 동쪽과 별채주변이 집에서 부엌영역이었음을 보여준다. 본채는 정면4칸, 측면2칸 깊이를 갖지만 전면 반칸은 툇마루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 한칸 반을 실내공간으로 활용하였고 지하실과 다락 등 수직적 공간 구성이 다양하다. 가장 우측칸 기존 부엌의 위치는 출입 및 조리, 전시 공간으로 계획하고 좌측 세칸을 넓게 터서 카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했다.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인 3칸짜리 전면 툇마루에는 한 칸 너비의 미서기창을 설치했고 배면에는 가퇴에 툇마루 구성했다. 별채는 마루, 방, 욕실로 세 칸을 구성하고 마루칸에서 남향으로 반 칸 툇마루를 뒤서 한옥내 빛을 잘 들이면서 한옥체험시설 방문객에게 마루에서 쉴 수 있도록 계획했다. 별채 북측면에는 높은 굴뚝이 있는데 연접한 곳에 한 칸을 덧달아 아궁이 딸린 간이부엌으로 활용했고, 본채의 서북측면에 증축된 창고 등은 요리교실의 보조 주방으로 카페테리아의 화장실로 리모델링하여 대지 전체와 건물이 한옥체험공간으로 이용되도록 했다.

건축양식 및 입면

본채는 광양한옥의 평면과 배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재가 균일하면서 대들보 등의 부재 또한 일정한 규격으로 이루어져있는 등 일제강점기의 일본식 목조주택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본채의 뒤틀마루는 외부로 개방된 형태가 아닌 실내형으로 뒤틀마루 전면에는 세 칸의 뒤틀마루를 가로지르는 큰 창틀의 원형이 남아있었으며 이를 재사용하여 세 칸의 통유리창을 설치해 개방감을 확보했다.

본채 부엌간은 광양한옥의 특징 중 하나인 내민창 형태가 보이는데 창틀의 개구부를 유지하면서 신설되는 창틀을 내민창처럼 구성해 설치했다. 본채와 별채, 대문채 및 창고 등 기존의 강돌 화방벽과 고막이를 유지하고



광양읍 읍내리 383번지 부엌 내민창

© 참우리건축

수선이나 신설되는 건물이나 담장에도 철거 시 확보한 강도로 동일한 이미지의 입면으로 구성했다.

본채 부엌칸은 광양한옥의 특징 중 하나인 내민창 형태가 보이는데 창틀의 개구부를 유지하면서 신설되는 창틀을 내민창처럼 구성해 설치했다.



광양읍 읍내리 383번지 기존 재료 및 요소들을 살린 모습

© 참우리건축

본채와 별채, 대문채 및 창고 등 기존의 강돌 화방벽과 고막이를 유지하고 수선이나 신설되는 건물이나 담장에도 철거 시 확보한 강돌로 동일한 이미지의 입면으로 구성했다.

재료 및 기타

비슷한 크기의 수직, 수평부재가 이루는 목구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실내공간을 넓게 터서 기존의 문선과 인방재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했고, 전면의 세 칸 통창과 다락, 지하실, 눈썹짜기 환기창 등 원형으로 추정되는 형태 뿐 아니라 70년대 유행하던 부엌의 목재 천장마감, 타일 벽체, 철골로 구조를 보강한 형태 등 개보수 흔적 또한 건축물의 유지·보수와 공간 활용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최대한 보존 활용했다. 기와는 인서리한옥 별채에 사용되었던 일체형 기와를 철거 시 보관하였다가, 부분 변화 및 깨진 기와 교체 시 활용했는데 재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내구성이 좋은 기와였다.

3) 수선 계획의 주안점 계획 방향 및 개념

해체 및 철거공사 전에 실측을 통해 한옥의 원형을 파악했으며 광양한옥의 평면과 입면의 특성을 파악하고 증축부를 이루는 재료와 구조유형을 검토해서 구조보강이 필요한 개소를 파악하고 장소성에 기반해 새로운 기능의 맞추면서 옛 것과 새 것이 만나는 지점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유지 혹은 철거, 보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목구조의 처짐이 발생한 부분의 보강이나 재생산이 불가했던 기와의 활용 등 사용자의 생활 편의성 등을 고려하되 가능한 목구조를 최대한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기본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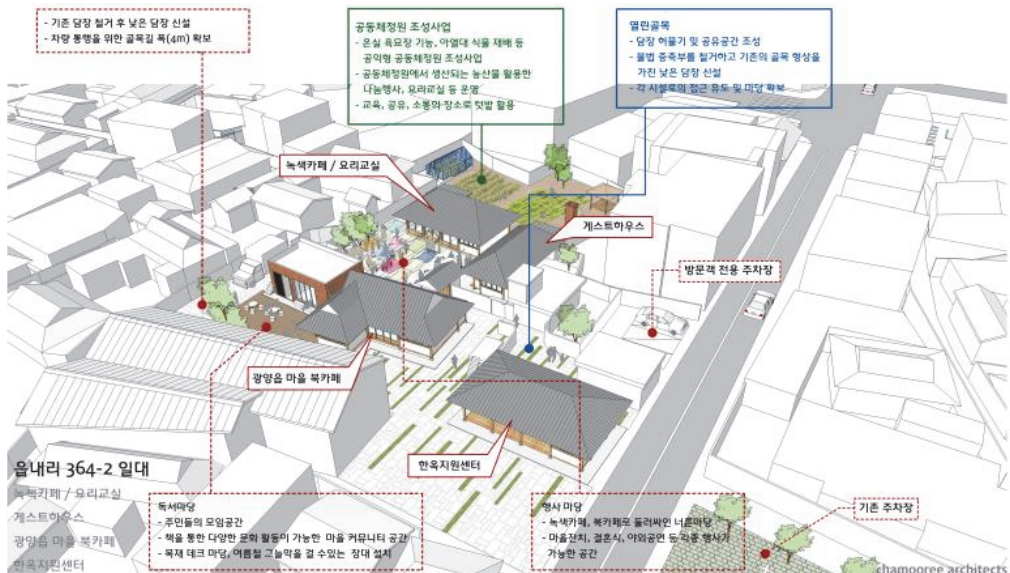
활용 방안 넓은 텃밭을 가진 본채는 녹색카페/요리교실로 계획했고, 별채는 광양읍에 오는 방문객의 숙박용도로 활용하도록 한옥스테이 용도로 정했다.

리모델링 원칙 서측과 북측의 증축으로 가려진 한옥의 원형을 살리면서 생활의 흔적이 남아있던 아궁이, 굴뚝 등 외부 주방을 이루는 재료 등은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수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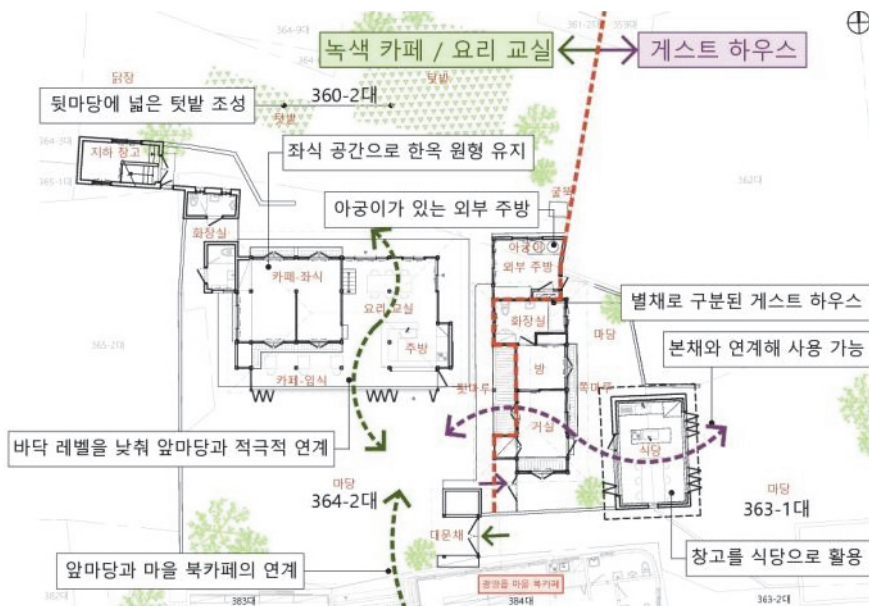
한옥의 외관을 가리는 증축부 및 대지 경계를 넘는 증축부는 철거했는데 본채 서북쪽 뒷마당의 증축부는 카페테리아에 필요한 화장실과 창고 등의 용도로 이용가능해서 기능에 맞게 살려 활용했다.

본채는 처마 끝까지 달아내어 한옥 목구조를 가리는 증축부를 철거하고 실내공간은 넓게 터서 카페 및 요리교실로 이용하고 바닥 레벨을 조정하여 새로운 용도에 맞도록 공간을 조성했는데 특히 상부구조 중 추녀가 처



광양읍 읍내리 녹색카페 및 요리교실, 게스트하우스 등 계획안

© 참우리건축



읍내리 한옥 수선 계획도 및 활용 계획안

© 참우리건축

짐으로 발생할 구조변형과 누수, 기와의 유실 등에 대비해 추녀 4개소 끝 부분에 활주를 설치했다. 별채는 방과 거실의 구조를 살려 게스트하우스 공간으로 계획했고 외부 주방은 요리교실에서 활용하면서 카페테리아의 빵굽는 공간으로 증축했다. 그리고 창고의 대지 경계를 넘어가는 증축부는 철거한 후 필요한 공간과 설비는 한옥의 외관에 어울리는 한식 목구조로 증축하여 조화로운 분위기로 계획했다. 특히 목재 천장, 고창, 타일, 화방벽 등 기존의 특성과 더불어 지금은 구하기 힘든 재료라면 최대한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 진행 중에도 지속적으로 협의 후 반영했다.

4) 공사 과정과 지붕보전 방법

공사과정

본채의 전후 덧달아낸 공간과 샷시, 본채와 별채의 사이에 지붕을 덧대어
통로로 만든 공간 등 증축된 부분들을 걷어내면서 한옥의 원형과 증축된
부분을 파악하고, 철거하고 보존할 부분을 결정했으며 본채와 별채의 부분
변와, 대목공사 및 미장공사 진행 후 대문채 수선과 부대토목 공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인서리19번지와 마찬가지로 마당의 배수로 등을 증설한 이후
창호공사와 내외부 타일공사 등 마감 공사를 진행하여 전체 공정 마무리하
는 것으로 공사계획을 했다.

구 분	내 용		
공사명	광양읍 한옥가꾸기		
대지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383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공사기간	2019년 12월 27일 ~ 2021년 1월 31일		
발주처	광양시		
설계자	(주)참우리건축사사무소		
시공자	대화이엔씨 주식회사, 기룡건설(주)		
감리자	(주)참우리건축사사무소		
용 도	단독주택 (한옥체험시설)		
대지면적	1,446 m ²		
규 모	지상 1층		
구 조	한식목구조		
건축면적	277.33 m ²	건폐율	21.76%
연면적	277.33 m ²	용적률	21.76%

광양읍 읍내리 한옥거점공간 공사 개요

공사과정에서의 이슈 및 지붕 존치 방법

본채 전면의 덧달아낸 공간을 철거 해 보니, 기존의 창틀과 빗마루의 원형이 잘 남아있었고 전면 빗마루-통창문틀-고막이가 마치 한 몸처럼 느껴져 당초 전면으로 진입하려던 계획을 틀어서 건물의 동남쪽 측면으로 출구를 바꿔서 전면의 요소를 존치하는 것으로 협의했는데 특히 창틀의 경우 기둥열과 수장면에 맞춰 칸칸이 설치된 형태가 아닌 기둥 앞에 덧달아내어 빗마루 세 칸을 한 번에 가로지르는 독특한 형태의 창호여서 흔치않은 큰 문틀의 원형을 살리기 위해 입면 디자인 및 창호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기존에 실내 전체 바닥을 낮춰서, 마당에서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미서기 문을 각각의 칸에 설치하는 계획이었으나, 기존의 큰 문틀을 활용하고 세 짝의 미서기 문으로 디자인 안을 만들었다 전면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마당에서의 자유로운 출입은 측면 출입으로 다소 어려워졌지만 카페테리아의 좌석으로서 마당 또는 실내 홀에서 걸터앉을 수 있는 빗마루를 남겼는데 이는 광양한옥의 특징을 방문객이 몸소 느끼면서 남쪽 마당을 향



광양읍 읍내리 한옥 상부 창틀과 강돌 고막이

© 참우리건축

한 개방감을 갖는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 후면의 툇마루는 당초 툇마당으로 개방적인 창을 만들기 위해 철거하려고 했으나 반침의 형태로 달아낸 것으로 하부 강돌로 만든 고막이가 잘 남아있었으므로 그 형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서리19번지와 마찬가지로 대문 옆의 외부 수돗가를 철거하고 보니 우물자리였던 것을 확인하였고 건축공사 이후 외부 공사 시 이 집에서 나온 강돌을 쌓아서 우물을 보존했다.



광양읍 읍내리 한옥 전후면 툇마루

© 참우리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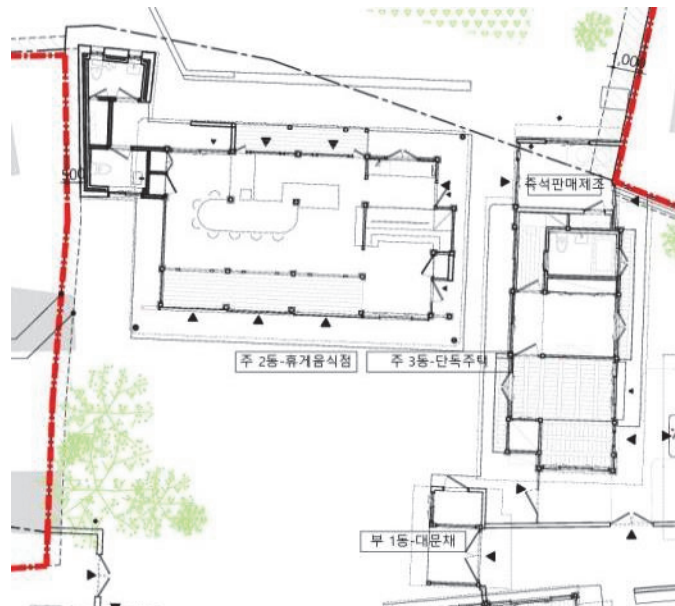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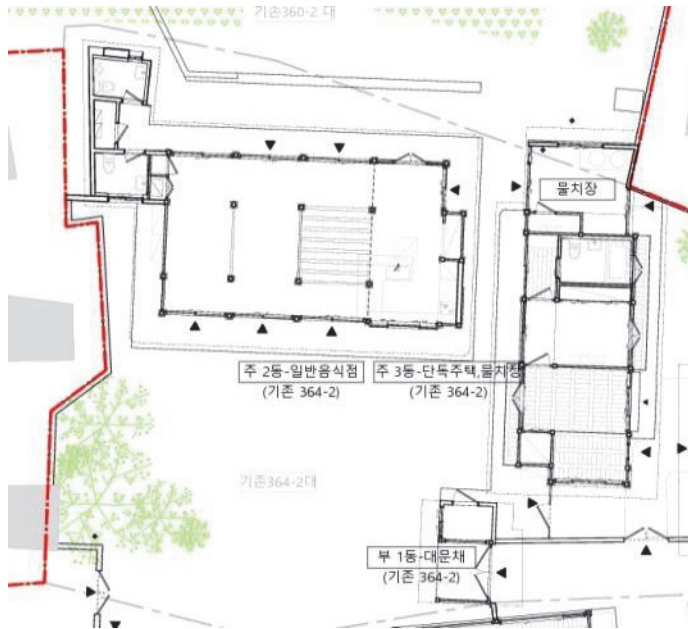
읍내리 383의 본채의 가장 큰 특징은 암수한몸의 일식기와로 이은 우진각 지붕으로 인서리19번지 한옥과 함께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다양한 한옥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였기에 기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에 당초 기와공사는 하지 않고 용마루와 추녀마루 하부 회벽만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공사가 시작되고 비가 내렸을 때 북동측 처마선의 처짐과 누수흔적을 발견해 급하게 전체 번와가 논의되어 지붕일부 철거 후 확인한바 서까래의 상태가 양호하고 추녀 끝부분 외의 처짐이나 뒤틀림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전면 평고대도 일부 처짐이 있었으나 크게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에 기와선의 유지와 기와형식 보존, 내부 목재의 변형 없이 온전한 구조를 보존하기 위해 추녀마루 부위만 부분번와하고 모서리 추녀 4곳에 팔각 단면의 활주를 초석 위에 세워서 향후 발생할 추녀의 처짐을 보강하는 것으로 지붕존치를 위한 방안을 세웠다.



광양읍 읍내리 한옥 처마 귀퉁이 활주 보강(좌), 우물자리 확인 후 재현(우)

© 참우리건축



광양읍 읍내리 한옥 기존계획안과 변경계획안(아래)

© 참우리건축

광양읍 한옥거점공간의 교훈

한옥거점공간 구축과정으로 본 구옥 리모델링 원칙과 방향

광양한옥거점공간 사업은 기존 건물의 원형을 가급적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구옥 리모델링의 원칙은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한옥의 원형을 보존하되 이때의 원형은 최초 건축당시의 원형이 아닌 리모델링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건축물의 구조나 거주 환경을 저해시키고 무분별하고 과도한 증축부분은 철거하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생활 편의성 등을 고려한 증축부는 시대에 따른 변형이 있었어도 현 상태에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계획도면에 근거해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철거 후 부재 상태와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에 대해 협의하고 검토하면서 기존의 개보수 계획과 활용 계획에 맞지 않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 계획을 변경하거나 설계를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새롭게 발견되는 부재나 기술은 협의를 통해 존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수선 및 활용 계획의 변경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선을 진행하고 원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광양한옥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

광양읍 인서리 19번지와 읍내리 383번지 한옥은 모두 광양읍성의 남쪽면에 위치하며, 남문의 정면으로 난 남문로에서 골목을 굽어 들어가 필지로 진입할 수 있다. 대문과 부속채들은 동향 혹은 서향으로, 남향으로 배치된 안채와 수직으로 배치되어 마당을 둘러싸고 있으며 두 한옥은 각각 조선 후기,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건축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광양읍 지역에서 널리 지어진 남부형 한옥의 구조와 형태 뿐 아니라, 건축 시기의 시대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광양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一자형 겹집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인서리 한옥은 건축 구조와 부재 크기, 지붕 및 기와의 형태 등 전통한옥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는데 비해 읍내리 한옥은 전통 한옥의 구법과 의장 요소를 가지면서도 규격화된 세장한 부재 크기, 일체형 기와 등 일식가옥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두 한옥 모두 지속적으로 살림집으로 사용되면서 시대의 변화와 사용자 편의에 따라 몇 차례의 개보수 혹은 증축이 이루어졌으나, 과도한 원형의 변경은 없었고 관리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여 변화 과정 속에서도 원형을 잘 간직되어 광양한옥의 특징과 당대의 건축 기술, 재료 등을 상당부분 파악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 개보수 및 증축이 이루어진 부분들 또한 시대에 따른 사용자의 요구, 당시의 재료 등을 잘 보여주어 광양읍 일반 주거와 건축재료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광양읍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 당시부터 지역 주민 인터뷰 및 지역 장인 인터뷰, 사업 대상지 매입 및 주민 협의,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진행한 광양읍 도시재생대학 한옥전문가 되기 실무교육 등 광양시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소통, 공감함을 통해 수선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광양 한옥에 대한 인식과, 광양에 수많은 한옥 건축자산이 산재함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방의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겠다.

광양읍 한옥가꾸기 사업 대상지들은 지역거점이자 관광지로 점차 활용의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이 지역 주민들에게 한옥수선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자 관광자원으로써의 역할이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광양한옥거점공간의 가치

광양읍 인서리19번지 한옥(인서리공원 다경당)과 읍내리 383번지 한옥(인서리공원 거점공간)은 광양 지역 한옥건축의 특징을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건축 당시의 시대적 특성과 변화를 잘 나타내는 데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지니는데 골목길 안쪽에 주요한 집이 위치하는 도시 조직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골목과 건축이 별개가 아니며 광양읍 원도심의 오래된 도시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데 경관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향후 민간사업과 공공사업의 확장 시 시대를 거치며 변화한 골목경관을 유지하면서 건물의 원형의 존치가 현시대의 용도에 부합하면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도움이 될 사업이었다고 판단된다. 광양읍 한옥 거점공간 사업 등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리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본인이 살던 마을과 한옥에 대한 인식 등을 재고하고 자부심을 심어주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이루는 마을에 대해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문화공간으로써 주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써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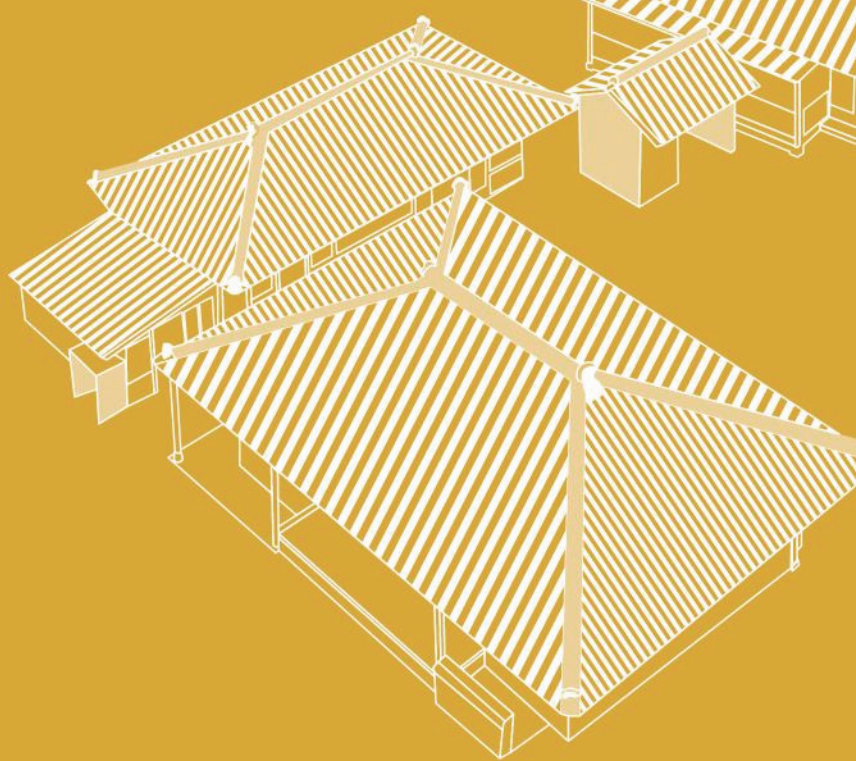


광양읍
한옥,

지역
문화거점을
향하여

IV

지역 문화거점으로 거듭나는
한옥



박소연 (주)아트앤라이프 대표

복합문화공간 인서리공원

(카페·갤러리·스테이·아트샵)

전남 광양시 광양읍
남문길 65
(061) 761-6700

인스타그램 :
카카오채널 :

인서리 공원은 광양시에서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리노베이션 한 크고 작은 14채 공간에 일상이 예술, 예술이 일상이라는 가치 아래 작가들의 작품을 에디션 프린트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아트앤에디션과 그림닷컴 그리고 카페 Aat가 함께 참여하면서 완성된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인서리는 광양시의 지명이며 '01'은 아름다운 공간을 원하는 공원으로 읽고 최고의 공간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①, ② Aat (At all times !)

[카페 & 라이브러리]

커피, 디저트, 와인, 푸드마켓이 한 공간에 있는 one-stop shop 입니다.

디저트는 ③공간에서 직접 구워요!

카페에는 다양한 와인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맥거리와 식료품 구입이 가능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맞은편 라이브러리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④ 반창고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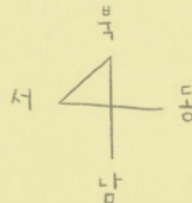
반 (BARN 공간, 헛간)+창고 = 옛날 곡식창고로 쓰이던 건물입니다.

반 + HEAL : 지역사회, 환경을 살리는 치유 창고

반(班) + SHARE : 함께 쓰는 나눔 창고

중의적 의미를 두고 운영하는 갤러리입니다.

바뀌는 전시와 다양한 대관 행사들로 채워지며 지역민들과의 교류를 도모하는 공간입니다.



⑤ 아트앤에디션 (아트샵)

작가들의 에디션 작품부터 저렴한 아트 포스터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그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하기에 좋은 소품들과 문구류, 아트 굿즈들을 지역 작가와 협업하여 판매를 장려하고 클래스를 제

inseori01

인서리공원

⑦ 01 (팝업스토어)

현재는 광양지역의 풍선 업체 '마마스 벌룬'이 입점해있습니다.

추후에도 역량 있는 지역업체들의 입점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⑧ STAY 해경당 (기준2인)

한옥이 더 이상 옛것이 아닌

현대의 팝 한 공간으로 거듭난 곳입니다.

아늑하고 따듯한 느낌으로

커플, 친구, 소가족이 머물기에 좋습니다.



⑨ STAY 예린의 집 (기준4인)

근대시대에 있을 법한 공간으로 모던 걸·모던보이가

머물렀던 느낌으로 꾸며진 곳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고가구들이 눈길을 사로잡아요



⑩ STAY 다경당 (기준4인)

100년 한옥을 리노베이션 하여 고택의 정취를

가득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별채 (주방) 에서

프라이빗 한 파티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시대별 한옥의 스테이!

네이버에 [인서리공원] 검색후 예약해주세요 :)



마을 골목을 걸으며 만나는 그래서 더 감동적인 예술공간입니다.

폐허가 된 집을 감바오 작가님의 작품으로 꾸며두었습니다.

감바오 작가님은 여느 작가와는 다르게 회화는 물론

공예와 조각 등을 두루 넘나들며 다양한 소재와의 접목을 통해

여러 장르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람시간 화-토 12-17 입장권 : 5,000원)

판매하며

확하는 공간입니다.

지역 문화거점으로 거듭나는 인서리공원(01)

한옥의 매력에 빠져 광양으로 오다

광양의 복합문화공간 ‘인서리공원’은 광양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리노베이션한 한옥을 포함해서 크고 작은 14채 공간에 일상이 예술, 예술이 일상이라는 가치 아래 여러 명의 작가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트엔라이프와 주식회사 두그루가 함께 참여하면서 완성된 공간이다. 주식회사 아트엔라이프는 판화공방을 운영하며 ‘아트앤에디션’과 ‘그림닷کم’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화와 아트프린트 그리고 아트굿즈를 판매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두그루는 파주 출판단지에서 Aat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평상시에 한옥을 포함해 옛 것들에 관심이 많고, 옛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터라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리노베이션 되어 있는 멋진 한옥이 있다는 지인의 말에 솔깃해서 바로 광양으로 향했다. 10여년 전 일주일 일정으로 남도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여수, 순천, 장흥, 목포, 고성을 돌면서도 광양은 잘 몰랐었다. 그 때의 여행을 통해 남도의 매력에 빠져 그 후에도 몇 번 여수, 목포, 순천을 가면서도 나에게서는 계속 광양은 모르는 곳이었다.

그야말로 난생 처음, 광양에 닿았고 운명 같은 공간을 만났고 말만 듣던 광양 불고기도 처음 먹어 보게 되었다. 지어진 지 100년이 넘었다는 한옥 다경당을 비롯해 재생되거나 새롭게 지어진 한옥들……. 그리고 한옥 옆

에 문화공간으로 개조된 옛날 창고인 반창고까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엇보다도 고즈넉한 광양읍 구도심의 마을 풍경은 언젠가 보았던 것처럼 익숙하기도 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처럼 낯설기도 했지만 우리가 호감을 갖기에 충분히 매력 있는 공간이었다. 그때가 다경당 마당에 동백꽃이 가득 피어 있던 2022년 2월이었다.

광양을 답사하고 서울로 돌아온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광양시에서 한옥거점공간의 관리위탁 운영자를 찾는 입찰 공고가 있었고, 잘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광양을 방문하며 느꼈던 매력에 끌려 잠깐의 고민을 뒤로하고 운영업체 공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물리적 거리, 14채라는 제법 많은 공간의 관리, 게다가 너무나 비효율적인 동선, 외지 업체로서의 핸디캡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해 보이지 않았지만 멋진 공간을 더 멋지게 채워 나갈 부푼 기대에 들떠서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하지만 용기를 내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한계에 부딪혔다. 각각의 공간들은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으나 이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기에는 많은 비효율을 감수해야 했고, 코로나로 인해 2년여 동안 관리 없이 있던 공간들은 보수가 많이 필요했다. 아끼자끼한 공간들이 정겹기는 하지만 대형 공간들이 인기몰이를 하는 최근의 트렌드와는 상반된 한계가 있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양시가 원하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 여러 가지 걱정이 밀려들었다. 서울과 광양을 오가야 하는 지역적 한계, 낯선 지방에서의 부족한 인프라 등도 쉽게 떨쳐지지 않는 불안감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광양은 포스코의 제철소를 유지한 산업 도시로서 인구가 줄지 않는 몇 안 되는 지방 도시 중 하나라는 것, 그리고 동일 생활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광양, 순천, 여수를 묶어 약 71만명 인구가 있는 제법 큰 소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도전에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위안이 됐다. 그리고 산 속의 카페,

말도 안 되는 공간에 숨어있는 카페, 논 뷰, 밭 뷰의 카페들이 SNS 마케팅으로 고객을 이끌고 있는 요즘의 세태를 본다면 우리가 못할 것도 없겠다고 다시 힘을 냈다.

그렇게 엇치락뒤치락 고민을 하며 공모를 위해 사업계획을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지난 20여년 진행해 온 여러 사업들과 아이디어가 광양읍 구도심 활성화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운영업체 선정에 자신감까지도 가지게 되었다. 운영자 모집공모에 서류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우리로 결정이 되면 좋겠다는 바램도 있었지만 안 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마지막까지도 고민과 걱정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어려운 프로젝트였다.

광양에서의 시작

결국, 우리가 운영 업체로 선정이 되었고 12월 1일 오픈을 목표로 몇몇 직원들과 1달간 광양에 머무르며 차곡차곡 준비를 했다. 우리의 운영계획에 있어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제는 흩어져 있는 14개의 공간을 어떻게 일관적인 컨셉 안에 묶고, 어떻게 운영을 효율화 할 것 인가였다.

100년 한옥 다경당을 포함한 3개의 한옥은 스테이로 인서리공원 중심부의 한옥과 창고는 카페와 전시공간, 그리고 체험이 있는 아트샵으로, 그리고 점점이 흩어져 있는 다른 공간들은 골목 미술관으로 계획을 했다.

우리 회사의 본 사업이 예술과 관련된 일이고 이 공간들을 재생하는 데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술이 될 거라는 생각이었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나오시마나 빌바오 등 아트로 거듭나는 해외 도시들의 사례처럼 우리도 국내에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며 작가들을 섭외하고 공간 스타일리스트의 컨설팅도 받으며 전력투구했다.

한옥 등 아름다운 공간에 예술을 입히고, Aat 카페를 입점시켜 한옥의 옛스러움과 모던한 F&B 공간을 매칭했다. 우리의 지난 경험으로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술가들은 기적을 만들어 냈다. 그렇게 초기에 가졌던 두려움은 어느새 자신감과 기대로 가득 찼고 이렇게 광양에서의 꿈이 시작되었다.



인서리공원 Aat 카페로 들어가는 입구

© 광양시

인서리공원의 시설과 운영 현황

복합문화공간 ‘인서리공원’은 14채의 건물들이 흩어져 위치해 있는 동네 이름 중의 하나인 인서리라는 지명을 사용하였고, 지역 주민들이 동네 공원처럼 즐기고 또 외부로 자랑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공원을 붙혀 ‘인서리공원’이라고 브랜딩을 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만 사업을 해 왔던 ‘아트앤에디션’과 ‘그림닷컴’은 ‘인서리공원’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그리고 더 가까이 예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대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만큼 아이디어들을 모아 ‘예술’로 가능한 여러 가지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했다. 아무리



광양읍 인서리공원 반창고(갤러리)

© 광양시

아름다운 공간이라도 콘텐츠가 없으면 무용하고, 매일매일 생성되는 콘텐츠가 그 공간을 의미 있게 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인서리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창고형 공간인 ‘반창고’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장으로 만들었다. 지자체의 전시 공간들이 지역작가 전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점을 경계하며 지역 작가만이 아니라 전국구의 작가, 나아가서는 외국 작가들의 불만한 초대전을 기획해서 인서리공원이 좋은 전시로 유명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좋은 전시로 지역 사회에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기여를 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12월 오픈과 함께한 첫 전시는 무용하게 있던 공간에 활력을 준다는 의미로 김경화 작가의 화려한 꽃 전시로 막을 열었습니다. 3월, 광양의 가장 큰 행사인 매화 축제와 함께하는 전시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작가 황란의 매화시리즈 작품 전시를 기획했다. 7월에는 광양시와 함께 광주, 여수, 광양, 순천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모아서 ‘아트로 놀자’라는 타이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보고 즐기고 구입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쉽고 편안한 전시를 선보이기도 했다. 다음 전시는 달항아리를 소재로 회화 작업을 하는 5작가의 그룹전으로 ‘달항아리, 소망을 담다’라는 제목으로 전시 예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다양한 전시 기획을 통해 공간의 매력을 배가하고 작가들과 지역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기회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반창고 전시(김경화 작가)

© 광양시

공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서리공원’ 내에서는 한옥 카페 Aat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음식을 하기에 충분한 부엌 시설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고민이 많지만 계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면서 메뉴를 안정화 시키고 있다. 일단, 커피는 최고급 원두를 사용하면서 이 공간을 찾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만들었고(커피가 아주 맛있습니다), 트렌디한 디저트로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재료를 사용한 매실 에이드, 매실 버터 잠봉베르 샌드위치 등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Aat는 카페의 역할은 물론 트렌디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 와인과 간단한 식사



광양읍 인서리공원 카페

© 광양시

도 가능하며 돌아갈 때는 간단한 먹거리 구입도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옥 카페에 어울리는 공예품, 지극히 서구적인 모던한 센스가 함께 어우러져 입도 눈도 즐거운 공간이 되기를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Aat는 부가가치 있고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지역, 이 공간에 특화된 먹거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인서리공원’ 입구에는 아담한 한옥에 아트샵을 만들었다. ‘그림닷컴’의 아트프린트, ‘아트앤에디션’의 판화는 물론 고급스럽고 양증맞은 제품들을 소싱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광양시를 대표하는 굿즈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아트샵 내에서는 굿즈 판매 뿐 아니라 고객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판화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티셔



광양읍 인서리공원 아트숍

© 윤준환

츠와 에코백을 만들 수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연인끼리 함께 할 수 있는 키링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인기가 좋다. 아울러 지역의 공예 선생님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인서리공원 입구 아트샵 옆에 위치한 차고로 사용하던 아주 작은 공간은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팝업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첫 작가로는 풍선 아트를 하는 광양지역의 청년부부와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아이를 키우는 부부라서 매장을 지키지 못할 때 손님들이



인서리공원 아트샵(좌)과 팝업 공간으로 사용 중인 건물(우)

© 국가한옥센터

아트샵에서 풍선을 픽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거나 풍선을 배달할 때 Aat의 쿠키를 같이 보낸다거나 등등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은 시너지가 있어서 상호 만족하고 있으며 더욱 다양한 지역 청년들과 교류하며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서리공원’은 건축된 지 100년이 넘었다는 한옥 다경당을 비롯해 3군데 한옥을 스테이로 운영 중이다.

100년 된 한옥을 리노베이션 한 다경당은 가구나 장식품에 특별히 많은 신경을 썼는데 한국적이면서도 지극히 모던한 스타일로 고급스러움을 배가했으며 별채로 빠져 있는 부엌 공간은 위킹 룸이나 파티 공간으로도 활



광양읍 인서리공원 카페 옆 스테이 해경당

© 윤준환



광양읍 100년 한옥 다경당

© 참우리건축

용 할 수 있어 특별히 사랑받는 장소가 되고 있다. 인서리 공원을 오픈하고 몇 번 쿠키클래스와 와인 파티를 기획했었는데 너무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카페 옆에 자그마한 스테이 혜경당은 한옥이 더 이상 옛 것이 아닌 현대의 힙한 공간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으며 젊은 고객들에게 특히 찬사를 받고 있다. 세번째 스테이, 예린의집은 일제 강점기 근대 시대에 있을 법한 공간으로 꾸몄다. 할머니 집처럼 친근하지만 구석구석 고급스런 장식품들이 또 하나의 특별한 공간으로 완성시켰다.

현재는 3개의 스테이가 완성되어 운영 중이지만 공간이 허락 되는대로 팡양읍에서 다양하고 아름다운 스테이를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몇몇 집은 한 작가의 작품을 온전히 보여 주는 작가의 집으로 만들어 마을 골목을 걸으며 쉽게 만나는, 그래서 더 감동적인 예술 공간으로 계획했는데 그 시작이 ‘갯빠오의 집’이다. ‘갯빠오의 집’은 낡고 쓰러져 가는 집에 갯빠오라는 작가가 직접 기획하고 손수 전시를 한 공간으로 집 한 채가 온전히 갯빠오의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큰돈을 들이지는 않았지만 예술, 그리고 예술가의 위대한 결과물이 되었다. 도시재생에 있어 ‘예술’은 떼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으나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갯빠오의 집’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이렇게 몇몇 곳이 추가로 만들어져 골목 미술관이 완성되기를 지속적으로 광양시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갯빠오의 집
© 인서리공원

지역과 함께하는 인서리공원

인서리공원 운영을 시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이었다. 우리의 자세도 문제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외지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이 많았던 것이다. 사업의 규모가 작지 않고, 조용히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니 더 걱정이었다. 일단 사업 개시를 하는 날 사방 100미터 반경까지 신경 써서 떡을 돌리는 것을 시작으로 내부 직원들에게는 어떤 부당하고 불편한 일이 있어도 현장에서 바로 불편한 대응은 삼가하라는 지침을 주었다. 하지만 우리의 걱정은 기우였고 도리어 많은 주민 분들이 칭찬해 주시고 손잡고 고맙다 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다. 우리 동네에 귀한 사람들이 왔다고도 하시고 우리 동네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니 놀랍다고도 하시니 우리 또한 감사할 따름이다. 아직 지역 분들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 용기를 갖고 더 많은 계획들을 세워 보려고 한다.

지난 8개월 동안 소소하게 진행했던 여러 행사들이 다행이도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런 행사들은 인서리공원이 광양에 안정적 랜딩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반창고 전시는 지역작가에 국한하기보다 미술관급 작가의 대형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조명을 받았고 전시와 연관된 강의 프로그램으로 아트앤뮤직이라는 특별한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최정주 교수를 초청하여 회화작품과 음악을 연결하여 감상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는데 지역 분들에게 신선하고 특별한 시간으로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 매 전시마다 작가와의 대화를 구성하여 작가들이 직접 작품을 설명하고 지역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작품을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이런 행사들은 문화적 행사에 관심 있는 지역분들과 자연스런 만남의 기회가 되었고 그런 분들과 관계가 성숙해 지면서 다른 행사로까지 자연스럽게



광양읍 인서리공원 플리마켓

© 인서리공원

연결되고 있다. 지역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시는 한 분은 직원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하셔서 쿠킹클래스, 와인클래스 그리고 커피클래스까지 연결되었고 평소에 삼겹살 먹고 영화 보던 시간과는 너무 다른 경험이고 만족스럽다는 피드백을 주기도 했다.

실험적으로 준비했던 플리마켓은 인서리공원의 고정적 행사가 되어도 좋겠다는 결정을 할 만큼 반응이 좋았다. 플리마켓에 경험이 있다는 지역의 한 청년들과 함께 기획과 준비를 진행했는데 처음하는 행사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전국에서 다양한 아이템의 셀러들이 참여해 주어서 지역분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는 행사였다. 지역분들의 참여도 많았지만 서울, 광주로부터 오신 손님들도 있어서 무척 고무적이기도 했다. 첫 행사의 성공적 반응에 힘입어 봄, 가을로 1년에 2번 주기적인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다.



광양읍 인서리공원 플리마켓

© 인서리공원

최근 진행했던 ‘아트로놀자’는 시청의 부속 기관인 문화도시 사업센터와 함께 진행했는데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광양시의 지원을 받아서 갤러리 수수료 없이 판매하는 기획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아트는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즐기고 사고 선물도 할 수 있도록 가벼운 행사 컨셉으로 진행했다. 이 행사 또한 주기적인 행사로 자리 잡아도 좋겠다는 결정을 할 만큼 반응이 좋았다. 게다가 전시 작품을 자사가 운영하는 라이브커머스와 플랫폼을 통해 4개 작품이나 판매하는 패거리를 올리기도 했다. 1년에 한두 번 인서리공원에서 지역작가들의 전시를 열고, 같은 전시를 파주 본사의 갤러리에서도 여는 계획을 통해 지역작가들의 도시 진출에 대해서도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이 행사는 광양시청과 자사의 경험이 큰 시너지가 될 뿐더러 앞으로를 모색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였다.

그 외에도 쿠킹클래스, 다경당 오픈 원데이블 디너 등등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경당 오픈 원데이블 디너는 참석해 보신 분들의 요구로 한 달에 한번 주기적으로 운영 예정이다. 아름다운 공간에서 가볍고 건강한 음식을 나누는 특별한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지역분들에게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설레는 일이다.



원데이클래스와
아트행사

© 인서리공원

최근에는 인서리공원이 광양의 문화교역소로 지정되어 한정인원의 남도여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광양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중앙에 위치한 도시로서 하동, 구례, 진주, 보성, 남해 등에 1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지역적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교역소는 광양을 기점으로 남도여행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서리공원이 타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광양시청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 타 지역의 관광객에게 한정기간 동안 인서리공원 스테이 15% DC, Aat 커피 무료 1잔, 금목서 광양 불고기 25,000원짜리 1인분을 10,000원에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인서리공원이 광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고 운영을 안정화하는 시도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는 쉽지 않을 뿐더러 숨 가쁜 행보였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었고 광양에 인서리공원의 존재를 알리는데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 나가는데 큰 토대가 된다고 믿고 있다.

공공기관과 함께 일을 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광양시청의 많은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응원을 해 주고 도움을 주고 있어 오히려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시청에서 인서리공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시청과 지역 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현재는 파주 출판단지 본사의 지점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광양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보다 지역 친화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보려는 계획도 하고 있다. 광양 현지 법인은 몇몇 회사들이 함께 투자를 하고 광양을 거점으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광양 현지법인을 설립하면 서울의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역의 산업체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명실상부 광양의 우량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야무진 꿈을 꾸고 있는 중이다.

향후 운영 방안과 과제

아직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단 첫 단계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안정화 하는 것에 힘을 쓸 계획이고 올해 안으로 광양 현지법인을 만들면서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4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만들어진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을 모두 활용하여 광양에서 또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다.

솔직히 광양 사업의 시작에는 극히 개인적인 소망도 내포되어 있다. 비즈니스가 있는 귀촌의 생활이 꿈이고, 사업이 안정되는대로 남도의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지방의 콘텐츠들과 기존 사업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 도시생활에서 얻은 것들은 훌훌 내려놓고, 지방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광양에서의 사업은 무엇보다도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를 광양에 토착화 하느냐가 관건이라 생각한다.

얼마 전에 일본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인 타루마리를 방문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돌아왔다. 재생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들은 그저 열심히 이상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과 공을 들였을 때 비로소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사업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영역인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금 했다. 그래서 개인이나 민간업자의 힘으로만 가능하지 않은 것 같고 공공기관이 함께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자가 함께하되 어느 정도 성공의 결과를 얻을 때까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프로젝트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는 시에서 장소를 선정하여 리노베이션을 하고 그 공간을 운영할 위탁업체를 찾고 위탁업체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또다시 공간을 리노베이션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 시청의 홍보 부서, 때로는 관광부서, 문화기관 등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 가능하다면 운영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그 업체

와 함께 공간을 계획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역할을 분담하여 참여하며 어느 정도 결과까지를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컨소시엄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면 훨씬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갑빠오의 집’을 포함한 골목 안에 작은 미술관들, 반창고 전시장 그리고 광양시 예술 창고와 전남도립 미술관을 연결하여 미술 벨트를 만들어 보고 싶은 소망도 있다. 여러 전시 공간 중 인서리공원 중심부에서 가장 먼 전남도립 미술관이 인서리공원으로부터 걸어서 15분 정도이니 반나절 또는 종일 중간중간 쉬어 가며 천천히 몇 개의 전시를 보면서 소일하는 마을이 되면 좋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그러려면 시의 협조는 물론 여러 업체들이 힘과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타 지역에 비해 뒤늦은 시작이지만 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이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광양 한옥마을에서 대한민국의 나오시마를 꿈꾸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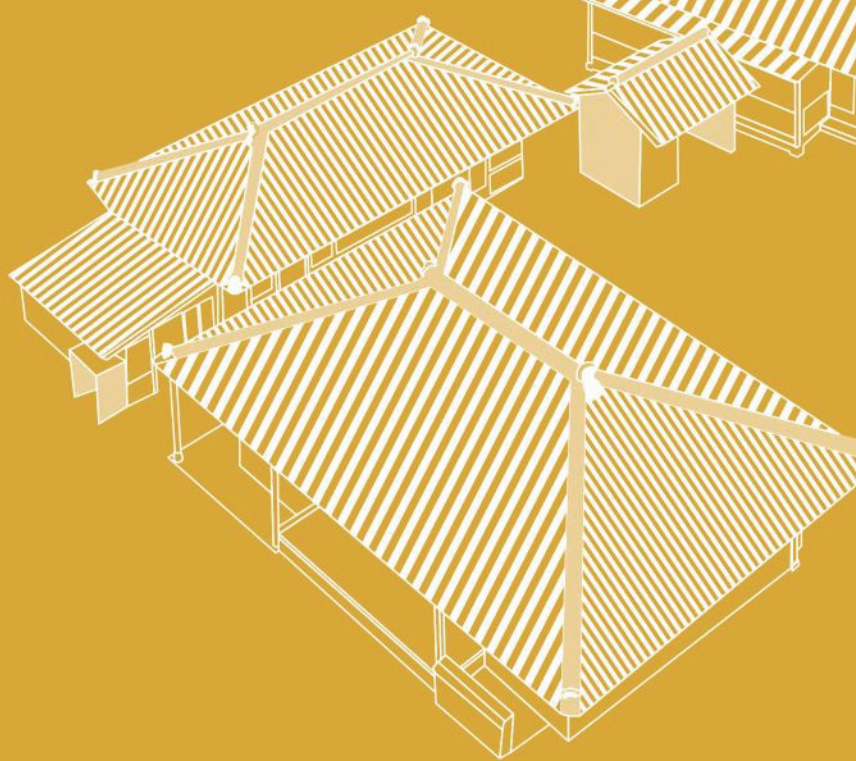


광양읍
한옥,

지역
문화거점을
향하여

V

광양읍 한옥거점공간에 거는
기대



진태승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광양읍 한옥거점공간에 거는 기대

한옥거점공간의 의미와 활용방향

마을 특성의 보전을 토대로 한 지역발전의 단초 마련

“이 집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지. 그런데 태어나 자란 집을 없애는 게 마음이 쓰여서 계속 세를 졌어. 가족들과 서울에 살고, 일이 바쁘니 큰 신경을 못 썼는데, 광양시에서 사서 고친다기에 팔았어. 이렇게 잘 고쳐질 줄이야. 정말 고마운 일이지. 저 뒷방이 내 공부방이었고, 여기는 부엌이었어. 다 기억이 나... 저 동백나무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심으셨어.”

“집을 살려줘서 고맙네. 광양시 소유가 되었으니 다시 살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마당에 서니 어릴 적 친구들과 놀던 추억, 아버지와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나서 좋네. 종종 올 수도 있겠고.....”

광양 인서리한옥에서 태어나 자란 70대의 어르신이 당신의 한옥을 공공의 것으로 재탄생하게 한 김원천 소장에게 하신 말씀이다.

광양읍의 한옥과 골목길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 지역의 가장 큰 자원으로 새삼 인식되었지만 사실상 지역 내 많은 한옥이 노후화되어 전반적인 거주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인 것이 분명했다.

광양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한옥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화된 한옥 주택의 지붕 등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최대 1천만 원(도시재생 사업지침에 따른 최대 금액)까지 보조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주민들의 호응

을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이는 실제 개보수 비용을 고려하면 보조금이 크지 않은 수준인데다가 고령 가구가 많은 편으로 자부담을 내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광양시로서도 한옥이 지역의 가장 큰 자원이라 할지라도 사적공간에 무작정 큰 비용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광양시가 여러 채의 한옥을 매입하여 지역의 공유자산으로 거점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마을의 가장 큰 자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곳에는 한옥의 분위기와 장점을 살려 카페, 아트숍, 한옥스테이 등이 자리 잡았다. 한옥 카페는 매실과 같은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내는가하면 아트숍은 전국의 예술가 뿐 아니라 지역

광양읍 03

Aot

옛주택을 세련되게 리모델링한 한옥 카페

천장 서까래는 고풍스럽지만 실내는 모던한 분위기다.

동창이 커바깥 풍경이 잘 보이도록 했다. 음료와 디저트를 만능에 대어준다.

맞은편 한옥은 넓고 별채는 소품샵으로, 아기자기한 핸드메이드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옥 카페 앞에는 공장을 개조한 갤러리가 있으니 둘러보면 좋다.



59



- ☎ 광양시광양읍 남문길 65
- ☎ 061-761-6701
- 🌐 <https://naver.me/vdL3dVlm>
- 🕒 10:00-20:00, 매주 월요일 휴무
- 🚗 인서리크림, 팔리레, 아트샵이름



59

광양시 카페투어 책자에 실린 한옥 카페

© 광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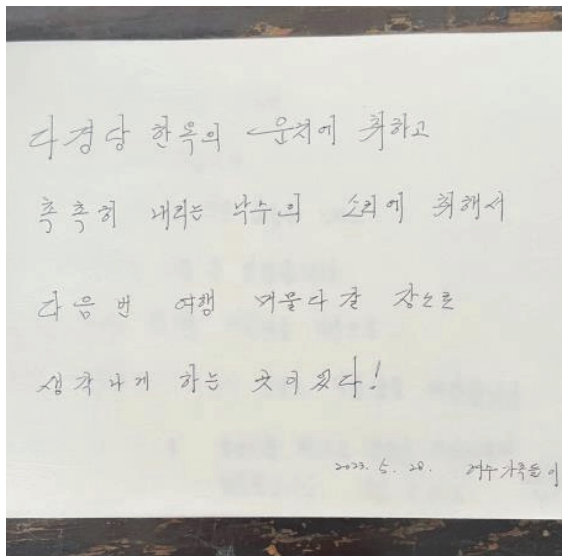
작가들의 작업도 소개하는 플랫폼이 되기도 한다. 또한 고택에서 즐기는 한옥스테이는 외지인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의 역사와 특성을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한옥거점공간은 주민들에게 마을의 역사를 담은 공유자산으로서 함께 향유하고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높일 수 있는 자원이 되고 있으며, 마을에 외지인들을 불러들여 퇴색한 거리에 조금씩 활기를 불어넣는 기능을 하고 있다.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공간으로서 기능

시간의 켜를 담아 새롭게 변모한 한옥은 더 이상 남루한 집이 아니라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적 공간이 된다. 특히 광양읍 한옥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너른 마당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 주택의 마당에서는 주로 가족 간의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뿐이지만 공유자산이 된 한옥의 마당에서는 운영자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에 힘입어 마을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나 먼 곳에서 찾아온 방문객들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있다.

한옥 카페에는 마을 주민들과 관공서 직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며 차를 마시고, 외지에 사는 자제들이 고향에 놀러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동네에 이런 핫플이 있다며 가족, 친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마을에 계신 어르신이 직접 농사지어 가져다 준 모과로 모과차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주민들이 플리마켓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한옥을 고쳐 만든 아트숍과 갤러리에서는 다양한 원데이클래스가 열려 재능을 나눈다. 한옥의 너른 마당에서 때때로 광양시와 인근 도시에서 온 개성 있는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플리마켓이 열리고, 한옥을 배경으로 작은 음악회가 열리기도 한다. 한옥스테이에 머문 방문객은 간접적으로나마 글(후기)로써 한옥에서의 체험을 다른 이에게 전하기도 한다.

이처럼 광양읍의 대표자산인 한옥을 매개로 하여 지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교류가 촉진되고 있다.



인서리공원을 통해 일어나는 사회적 교류

© 인서리공원



광양 한옥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류

© 국가한옥센터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 간 연계 거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광양읍 한옥거점공간이 위치한 지역은 과거 광양읍성이 있던 곳으로 읍성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으나 조선시대부터의 역사가 깃들여 있고 구 광양군청(현 광양역사문화관),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등 근대건축 문화유산(국가등록문화재)도 남아있는 역사적인 장소이다. 또한 전남도립 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 광양문화예술회관 등 지역의 문화인프라도 집중되어 있다. 이외에도 인근 광양불고기 특화거리나 광양 5일장과 가까워 역사문화관광에 필요한 요소들이 밀집해있다고 할 수 있다.



광양읍 한옥거점공간에서 열린 작은음악회

© 국가한옥센터

광양읍 한옥거점공간은 한옥 그 자체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인데다 그곳에 문화 프로그램을 담아 운영하고 있어 단지 역사문화자원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하다.

광양시는 문화도시센터를 두고 여러 해 동안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거점공간인 ‘문화교역소’를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 활동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옥거점공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서리 공원은 광양시 ‘문화교역소’ 중 하나이며 문화도시센터가 진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문화의 주요 거점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했다. 아트마켓을 운영하는 인서리공원은 앞으로도 인근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와 연계 협력을 구상 중이기도 하다. 이처럼 광양읍 한옥거점공간은 아직 시작단계이기는 하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 사업에



광양시 관광가이드북 - 광양읍 권역

© 광양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지역 내 산재한 주요 역사문화자원들을 연계하는 거점으로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한옥은 건축형식 자체가 갖는 시간성에 더해 형태와 자연재료가 주는 고유의 정서적인 측면으로 인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담기에 용이하므로 자연스럽게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광양읍 한옥거점공간에 대한 기대와 과제

광양읍 인근의 순천이나 여수에 비하면 관광지라고 할 만한 곳이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으레 광양제철소가 주는 강인하고 삭막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옛날부터 이 동네를 광양(光陽)이라 했던 것은 빛이 가득한 따뜻한 동네였기 때문일 것이다.



광양읍 인서리공원(한옥거점공간), 서울대 남부학술림관사 등에서 개최된 아트마켓 행사

© 인서리공원

지금 광양읍에는 조선후기부터 현재까지 이곳에서 살아온 이들의 삶이 담겨있고 따뜻한 별이 가득한 마당을 가진 한옥이 500여 채나 남아있다. 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한 한옥거점공간은 단지 흔한 카페나 한옥스테이가 아니라 쇠락한 지역에 문화를 불어넣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사랑방 공간을 넘어 지역 청년이나 소상공인, 예술가들이 만나 활동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한 공간, 전통적이면서도 개성 있는 공간으로 소위 핫플레이스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북촌 한옥마을이나 전주한옥마을처럼 널리 알려진 곳이 아니며, 광양을 애써 찾을 관광객도 많지 않다. 오래된 한옥을 새로 고쳤으나 꾸준히 관리하는 데에는 많은 애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옥거점공간을 한시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의 문화 사업에 가까운 노력이 그에 상응하는 큰 보상 없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한옥거점공간은 단지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거점공간 조성으로 촉발된 움직임이 광양읍 한옥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되어 마을 전체의 보전과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한옥거점공간 조성사업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광양읍 한옥 지역문화거점을 향하여

발행일 2023년 12월 31일

펴낸이 이영범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 KT&G 세종타워B 8층
<http://auri.re.kr> | www.hanokdb.kr

지은이 염은진, 신치후, 김원천, 박소연, 진태승

편집집 진태승

디자인제작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출판등록번호 제2015-41호(등록일 '08.2.18.)

I S B N 979-11-5659-459-8

비매품

© 2023,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

이 책의 저작권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에 있으며, 비매품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